

##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찬양

### 남가주 지역 부활절 연합예배 일정 확정돼

1947년 서울 남산 조선신공터에서 최초의 한국 부활절 연합예배가 열렸다. 현 한국기독교교회연합회의 시초인 조선기독교교회연합회와 주한미군의 주최로 열린 연합예배에는 1만5천여 명의 성도들이 참여해 예수 부활의 기쁨을 누렸다. 당시 부활절 연합예배는 해방 직후 치뤄진 것이다 그 기쁨이 남달랐다고 한다.

최초의 부활절 연합예배를 통해 부활을 소망했던 성도들이 누렸던 기쁨과 감격이 올해 남가주 각 지역 부활절 연합예배에서도 계속된다.

먼저 LA지역은 남가주교협(회장 변영익 목사) 주관으로 8일 오전 5시 30분에 동양선교회(박형은 목사)에서 드린다. 설교자는 변

영익 목사(벤엘장로교회)다. 교협에 따르면 설교 후에 △미국의 신앙 부흥과 경제 부흥 △조국의 평화와 민족 통일 △이민교회 부흥과 이민사회 번영 △동포사회 복음화와 세계선교를 위해 기도한다.

오렌지카운티 지역은 OC교협(회장 엄영민 목사)·OC목사회(회장 신종은 목사)·OC기독교전도회연합회(회장 손찬우 집사) 주최로 오전 5시에 베델한인교회(손인식 목사)에서 드린다. 설교자는 한중수 목사(얼바인침례교회)이고 △탈북자 안전과 북한의 복음화 △미국과 한국의 영적 회복 △미국과 한국의 선과와 정적 안정 △미국과 한국의 경제 회복 △다들 세대의 교회 정착과 부흥의 제목을 놓고 기도할 예정이다.

동부지역은 동부교협(회장 김민섭 목사) 주최로 선한목사장로교회(고태형 목사)에서 오전 5시 30분에 드린다. 설교자는 고승희 목사(아름다운교회)다.

중부 지역은 중부교협(회장곽 소건 목사) 주최로 감사한인교회(김영길 목사)에서 오전 5시 30분에 예배를 드린다. 설교자는 조철호 목사(실로암교회)다.

벤츄라 지역은 벤츄라교협(회장최상훈 목사) 주관으로 카마리오연합감리교회(이상영 목사)에서 오전 6시에 드린다. 설교자는 정준호 목사(리빙스톤한인교회)다.

샌퍼난도밸리 지역은 샌퍼난도밸리교협(회장 유재덕 목사) 주최로 벨리연합감리교회(유재덕 목사)에서 오전 5시 30분에 드린다.

설교자는 이준우 목사(벨리커뮤니티교회)다.

인랜드 지역은 인랜드교협(회장박해성 목사) 주최로 인랜드온누리교회(마원철 목사)에서 오전 5시 30분에 드린다. 설교자는 박해성 목사(남가주웨슬리교회)다.

샌버나디노 지역은 샌버나디노교협(회장 김성일 목사) 주관으로 창대교회(이준준 목사)에서 오전 6시에 드린다. 설교자는 김성일 목사(빅토빌예수마음교회)다.

샌디에고 지역은 샌디에고교협(회장 강용훈 목사) 주최로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어서 예배를 드린다. 북쪽 지역은 오전 5시 30분에 팔로마한인교회(서명성 목사)에서 드리며, 설교자는 최동진 목사(반석교회)다. 남쪽 지역은 같은 시간에 한빛교회(정수일 목사)에서 드리며 설교자는 조다윗 목사(샌디에고제일침례교회)다.

토마스 맹 기자

## INTERVIEW

### 성전건축으로 새 도약하는 남가주동신교회

지독한 불경기다. 건축을 계획하던 교회는 잠시 중단하고 건축을 하던 교회는 한숨을 쉬고 건축이 완료된 교회는 가슴이 답답한 그런 시기다.

그런데 남가주동신교회는 불경기와 함께 건축을 계획해, 건축하다가, 불경기 중에 건축을 완료했다. 성인 1천명 이상 수용이 가능한 미국인교회를 구매하기로 결정했고 최근 이 절차가 모두 완료됐다.

담임 손병렬 목사는 “우리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일하셨다”고 강조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뜻이다. 그는 인터뷰에 앞서 “우리 교회 자량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거듭 부탁하며 “우리 교회의 사례가 경제적으로 힘들어 하는 교회들에 희망이 되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손병렬 목사. 어떤 면에서 원리원칙주의자다. 요즘 유행하는 ‘짬수’라는 것 없이 우직하게 목회하는 목회자다. 목회의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대로 정면 돌파해서 승부내는 승부사 기질이 있다.

그는 인터뷰 내내 “하나님과 의 관계”라는 말을 반복했다. 그것이야말로 신앙의 기본 원칙이자 목회자가 성도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가장 주목해야 하는 단



손병렬 목사

어란 것이다. 이번 성전 건축에 있어서도 그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일에 주목했다. “더 큰 건물이 갖고 싶다”가 아니라 “이런 일을 감당하겠다”라는 비전을 세웠다. 건축이 완료된 후에도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다”라고 겸허히 물러섰다.

손목사는 동아대학교를 졸업하고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목회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으로 유학해 풀러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나성영락교회 부목사를 거쳐 2004년 남가주동신교회 담임으로 부임해 오늘까지 목회해 오고 있다.

→ 2면에 계속

## “성령께 순종하라 성령께서 다스리게 하라”

### KAPC 서부지역 목사 장로 기도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서부지역 목사 장로 기도회가 ‘영성의 사랍’이란 주제로 총현선교회(민중기 목사)에서 26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됐다. 이 기도회는 KAPC 총회 교육부 주최, 가주노회·남가주노회·로스앤젤레스노회·서가주노회 주관으로 열렸으며, 강사로는 서삼정 목사(아틀란타제일장로교회)가 초청됐다.

첫날 저녁 서삼정 목사는 ‘영성과 자립’(골3:10)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서목사는 “영성이 풍성해지면 일이 형통해진다”라며 “이번 집회를 통해 영성이 풍성해질 길 바란다”라며 강연을 시작했다. 서목사는 영성이 자라날수록 더욱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성령을 경험했으면 육의 소욕을 좇아 살면 안되고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 날마다 힘써야 한다”고 전했다.

서목사는 또 성령이 주시는 지혜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즉시 순종해야 한다”며 “주는 설교를 준비할 때 가장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주님이시라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이다.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고민하고 기도한다.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할 때 양들이 복을 받고 울바로 세워져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교회에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 “하나님을 뒤로 하고 사람이 앞장서서 하려고 하니



아틀란타 지역을 대표하는 원로급 목회자인 서삼정 목사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며 “성령님이 교회를 통치하게 해야 한다. 주님이 교회 주인으로서 역할을 할 때 교회에는 기쁨과 평화가 넘친다”고 강조했다.

기도회는 △4개 노회와 지교회의 부흥을 위해 △조국과 북한 동포를 위해 △미국을 위해 등의 주제로 진행됐다. 예배는 사회 조영길 목사(총회교육부장), 기도 이준준 목사(창대교회), 특송 총현선교회연합성가대, 설교 서삼정 목사, 환영사 민중기 목사, 격려사 강기봉 목사, 광고 정병노 목사(총무), 축도 황은영 목사(IRUS 총장) 순으로 진행됐다.

토마스 맹 기자

### TAX 문제 전문

자신통계 및 은행구좌 차감해결, 일리세금상담, 세무감사내비전 IRS 행정관, 감사관, 수사관 40년 경력의 세법전문가, CPAs

Clients	Case (Dec/11-Jan/12)	Results
Mr. Hwang, W	IRS \$62,317	합의 \$8,218
Mr. Lemmonier, H	FTB \$118,874	합의 \$1,700
Ms. Wilson, M	IRS \$450,190	합의 \$20,160
Mr. Kim, H (C. Corp)	BOE	Sales Tax Audit Dismissed
Mr. Rogers, A	IRS \$327,280	Levy lifted & \$500/mo
Mr. Farley, C	IRS \$3,112,350	합의 \$0

KC Choi, E.A.

### TAX HELP TEAM (213) 248-0221

## 나라종합정비 & 바디

Nara Auto Body & Repair 사고차량 전문 바디샵

T. 323-734-4881 / (24hr) 213.247.6657

1201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 Insurance & Rent car, 사고처리

- Smog Check
- Brake Service
- Tune-Ups
- Computer Diagnostic
- 전기계통
- 30/60/90K Service
- A/C Service

### 귀국 자동차운송 업계최저 \$950

무료 전화 877-580-2424 / 323-582-2424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이사 시내이사 타주이사 자동차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www.easy2424.com

## 20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으로... 미주한인사회 대표 종합법률그룹

LEE & KENT LAW FIRM

www.leekent.com / www.us-lawoffice.com

대표변호사 이문규

LEE & KENT 법률그룹 대표변호사 미국 투자법 및 투자이민법 전문변호사 Univ. of Minnesota 법학 석사(1983년) Univ. of Missouri 경영학 및 회계학 석사(1989년) 알라바마주 변호사 자격 취득 연방법원 및 세무법원 판사와 변호사 미국이민법 변호사협회, 변호사 미주주주, 상인회(ISA), 합회(IFA) Business Advisory Council(캘리포니아 워싱턴) 미국 수출업 협 연회(NAI) 교육 변호사 국제 Law Firm Counsel, Bro/Partners 국제거래/회사법/이민법/이민 변호사 변호

### 이민법 [Immigration]

- 각종 비이민비자 / 이민비자
- 취업비자·취업이민(EB1, EB2, EB3)
- 종교비자·종교이민·가족이민
- 투자비자(E2), 투자이민(EB5)
- 추방재판, 불법체류 구제
- 비자거절·항소

### 상법 / 소송 [Business / Litigation]

- 민사(소송, 중재, 항소) 부동산법
- 형사, 국제 소송, 기술 이전 / 상표법
- 상법(계약체결·위반)

### 파산법 [Bankruptcy]

- 개인 파산, 기업 회생
- Chapter 7, 11, 13 소송 및 차압
- 신용 문제 상담

### [특별상담]

- 비자 거절
- 영주권 거절
- 추방재판

LA Office 3250 Wilshire Blvd, #1404 Los Angeles, CA 90010 213-380-2828

IRVINE Office 8 Corporate Park #300 Irvine, CA 92606 949-442-8370

SEOUL Office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02-7 영동빌딩내 더블유 오피스 J7호 02-541-0556

**교회 건축하며 지역사회 섬김, 세계 선교, 지도자 양성에 매진하는 남가주동신교회**

#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남가주동신교회가 이전을 앞두고 있지요?

현 위치에서 3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미국인교회인 이스트사이드 크리스천교회 건물을 우리가 구매하게 됐습니다. 그 미국인교회는 새 성전으로 이전하고자 현 성전을 부동산에 내어 놓았지만 이

부담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은 분명하고도 계획적이기에 저는 매주 여호수아서를 강해하며 온 성도와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서 1장부터 24장까지 말씀을 들으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면서 온 교회가 한결음씩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건물 구매가 확

우리에게 두려움도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그 땅의 정치, 경제, 군사적 상황에 관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과 당신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분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합니다. 요즘 교회의 관심은 너무도 밖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렵다 하고 죽었다고 하면서 상황이 엄매이곤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가 죽어서 영향력이 날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묻습니다. "전에는 안 힘들었습니다. 어차피 어려운 게 인생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부흥이고 영적 회복인 것입니다. 관계가 바로 서면 새 역사가 열립니다.

세상이 더 커 보이니 기쁘고 열려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민 처음 왔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힘들다 해도 그때보다는 더 잘 살고 더 잘 됩니다. 그런데 왜 걱정하고 있습니까?

-요즘 건축에 실패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교회가 많은데 동신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교회가 다른 이민 교회들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축을 하게 된 것은 우리의 능력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회자들이 회복되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갖고 있다면 숫자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책임

### 주님의 계획 믿으며 한걸음씩 전진

###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 신앙의 포인트

### 다른 교회들에 위로되고 힘 됐으면

불경기에 구매자가 나타나지 않아 결국은 허물고 아파트를 짓게 될 처지였습니다. 우리는 지역을 대표하던 45년된 이 교회가 허물어지고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소식에 너무도 가슴이 아팠는데 그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당시 우리는 정말 아무 것도 없는 상태였고 경기도 계약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면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순종했는데 결국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무엇을 갖고 있느냐?" 우리는 "우리에게 비전과 믿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당신들이 지켜 온 교회를 우리 한인교회가 이어가겠다. 지역사회에 교회를 오픈하고 백인이든, 흑인이든, 라티노이든, 함께 어우러지는 교회로서 지역사회를 복음화하고 섬기겠다"고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3500만불이나 되던 그 건물을 1650만불에 구매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되고 대출도 확정되고 모든 계획들이 착착 맞아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 강해를 마치는 그날 세리토스의 한 중국인교회가 우리의 현 성전을 구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불경기에 미국인교회를 구매하게 된 것도 기적이고 동일하게 이 불경기에 중국인교회가 우리 교회를 구매하게 된 것도 기적입니다.

그 중국인교회는 약 700여명의 성도가 출성하는, 비전과 소명감이 넘치는 중형급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더니 너무도 놀라면서 건물을 구매하고 싶다고 나왔습니다.

-불경기를 겪으면서 이 비전을 두고 교회의 흔들림은 없었습니까?

우리 교회는 창립 후 14년간 놀림에 있다가 1991년 이곳에 와서 20년이 딱 차니까 새 성전으로 이전하게 됐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인도하심입니다.

**TOP MEDIA**  
교회설교 CD제작  
성가대 및 찬양대 소규모 앨범 제작  
교회에 필요한 모든 미디어용품 판매  
**TEL. 323-265-0244 FAX. 323-265-0250**  
3170 E. 11th St., Los Angeles, CA 90023  
www.topmediausa.com topmediausa@yahoo.com

**강력한 이민 변호사 강력한 형사법 변호사 강력한 이민항소추방변호사**

- ▶ 불법 체류자 문제 상담 환영
- ▶ 이민국이 부당하게 부결시킨분, 항소 하실분
- ▶ 추방위기에 처한분, 과거범죄기록있는분
- ▶ 학생비자(F-1) 변경, E-2 시민권자의 배우자
- ▶ 종교비자, 종교이민 전문, 한국에서의 비자발급

매춘, 강도, 절도범, 경제범죄, 마약, 음주운전, 사기, 미성년범죄, 배우자 폭행, 범죄기록 조회 및 말소,이혼

- 이민국의 부당한 결정으로 부결된 분  
- 이민국에 항소중에 있는 분  
(부당한 해고 임료 및 오버타임 미지급)  
**한국어 문의 (213)736-6696 제시카**

전화 213.736.6696 / 3600 Wilshire Blvd., #1220, Los Angeles, CA 90010 Law Office of Claire H. Kim & Associate.

터형가 소망장로교회의 LA 이전과 함께하는 부흥회  
**“강통교회” 이동휘 선교목사 초청 부흥회**

■ 이동휘 목사님은...  
1983년 미군들이 쓰던 창고 구조물을 구해서 전주안대교회회를 세웠다. 그 모습이 강통 절반을 잘라 놓은 것 같다 해서 '강통교회'라는 별명이 붙었고, 전주에서 '강통교회'라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해졌다. "예수를 위해 불편하게 살자"라는 특이한 구호를 내세우며 일평생 선교와 구제를 위해 온 몸을 다 바친 이동휘 목사의 삶이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줬다. 그는 항상 교회 재정의 70% 이상을 이웃을 위해 사용하며 그 흔한 자가용 하나 없이 검소와 절제의 삶을 살아왔다. 교인이 1만명을 넘어섰지만 전주안대교회 본당 또한 건축하지 않고 개척 초기의 모습 그대로 남겨뒀다.

■ 소망장로 교회 예배안내  
새벽 기도: 화-금 5:30 AM / 토 6:30 AM  
수요 예배: 7:30PM  
주일 1부 예배: 9:00AM  
주일 2부 예배: 11:00AM  
중고등부(EM): 11:00AM  
주일학교: 11:00AM

일시 : 2012년 3월 30일 - 4월 1일 (금,토,주일 3일간)  
시간 : 금,토 7:30 PM / 주일 11:00 AM  
주소 : 520 S. La Fayette Park Pl. Los Angeles, CA 90057

문의전화 213.487 2481 ■ www.smusa.org

지신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 했고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이번 건축과 관련된 저의 간증은 오로지 이것 뿐입니다.

-대체로 미국인교회들이 쇠락해 가는 추세를 따라서 이전 한인교회도 쇠락해 가고 있다는 비판들이 높습니다.

하나님이 이번 건축과 관련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하드웨어를 다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부흥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한 후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사용해서 모든 백성에게 말씀을 들려 주시고 영적인 회복

입니다. 현재 위치에서 20년간 있으면서 이 동네 사람들이 모두 우리 교회를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전한다고 하자 몹시 섭섭해 하면서 우리를 불잡을 정도였습니다. 커뮤니티 차원에서 교회의 중요한 행사 때 그들을 초대해 함께 했고, 지역의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전달했습니다. 지역사회의 친구가 되는 교회가 되고자 노력한 것이죠.

또 미국사회든, 한인사회든 무슨 장소가 필요하다고 하면 전액 무료로 교회를 빌려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일 교회가 열려 있습니다. 교회 스케줄과 중복되지 않는다면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걱정을 안 끼치는 교회, 주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교회의 역할을 해 왔습니다. 것처럼 이전 후에도 이 사역들을 더욱 잘 감당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세계선교에 있어서도 현재는 재정적 30% 정도를 세계선교에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40%까지 확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더 큰 교회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만 잘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남을 섬기라고 하시는 메시지가기 때문입니다.

특히 복한 선교에 관심을 갖고 복한 어린이들을 구제하는 일에 나서고자 합니다. 우리의 동포를 돕는 일에 교회가 인식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동신교회에 부담하신지 10년 가까이 되셨습니다. 교회 자랑을 해 주신다면.

저는 한때 1명 권사님 앞에서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설교하고 있는데 그 권사님이 평평 우셨습니다. 저는 설교에 은혜를 받으셔서 우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제가 불쌍해서 우는 것이

었습니다. 촉망되는 젊은 목사가 어떻게 한 사람을 놓고 설교하는지 그게 불쌍해서 울었다 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다른 교회와 비교할 이유도 없고 사이즈에 연연할 이유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맡겨 주시는 이들을 잘 목양하면 됩니다.

이후 하나님께서 저를 이 동신 교회에 보내셔서 올해로 9년째입니다.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깊은 전통과 신앙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제가 부임한 후 9년만에 찬양과 말씀,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통성기도나 설교 중 '아멘', 찬양에 기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변화되는 데에 참으로 많은 노력과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서두르지 않고 재촉하지 않고 교인들을 품었습니다. 교인들이 마음을 열어 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그 어떤 것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모두 손을 들고 뜨겁게 찬양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토요일 새벽기도회에 수백명이 모이고 80대 어르신들도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3부 주일 예배 가운데 1부, 3부는 전통 예배라서 제가 목사 가운데 입고 전통적으로 예배를 집행합니다. 그러나 2부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예배라서 제가 젊은 세대에 맞게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에 어르신들이 꽤 많이 오십니다. '왜 여기로 오시나?'고 물었더니 '젊은 이들이와 한 목소리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좋다'는 것입니다. 찬양에 신선함이 있고 은혜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전통과 새로움이 공존하는 교회입니다.

또 우리 교회는 예배에 목숨을



거는 교회입니다. 예배를 한번 드려도 설교자와 찬양 인도자가 미리 모여서 설교와 찬양을 한 맥락으로 디자인합니다. 잘 짜여져 군더더기가 없는 예배, 다양한 문화적 컨텐츠가 있는, 감동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덧붙이신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감사드리고 성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인데 이 부족한 종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전 이전이 결정되기까지 1년 4개월동안 온 교인들이 하나되어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 덕에 이렇게 아름다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된장국 같은 교회입니다. 먹음수룩 뒷맛이 좋은 그런 구수한 교회입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한번도 분열이나 갈등을 겪지 않고 사람이 넘치는 교회로 존재해 왔습니다.

보통 성전을 지을 때 교회에 갈등이 많이 생기는 법인데 하나되어 뜻을 모아 주신 당회원과 장로님들에게 특별한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김준형 기자

### 거룩한 부흥의 부르심 앞에 은혜로 설 것 지역사회와 세계 더 크게 섬길 것 다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함 마음에 새겨

저는 생각의 차이라고 봅니다. 쇠락하다 하면 쇠락하고 부흥한다 하면 부흥합니다. 이스라엘도 가나안 땅에 가기 전, 죽겠다 원망하고 불평한 자들은 다 그 땅에 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용기를 얻어야 합니다. 바른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십니다.

모든 이민교회가 경쟁을 지양하고 서로 윈윈하며 성장하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과의 거룩한 동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간에 비교하거나 열등감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모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미국에 경제적 불황이 오면 하나님은 늘 부흥을 일으키셨습니다. 이번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갖고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야 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우리가 다 순종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실 것이고 그렇게 사용되는 교회가 늘어날수록, 그것이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그들을 통해 이 민사회가 건강해 질 것이라 믿습니다.

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성전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거룩한 부흥을 부르심 앞에 은혜로 서서 이루고자 합니다.

그리고 외적으로 볼 때, 이 성전을 우리가 구매하고 건축하게 된 것은 우리만의 부흥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온 열방을 향한 선교의 비전을 갖고 온 민족을 위해 더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라고 이 성전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역사회와 한인사회, 교계에 우리 교회가 더 큰 역할을 하라고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와 좋은 친구가 되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역과 함께 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커뮤니티에 복음과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교육적으로 위기를 겪는 이 사회 속에 영적인 리더를 양육하는 일도 중요한 비전입니다. 동성애 문제가 심각히 대두되는 요즘 같은 때에는 더욱더 영적 리더십과 비전을 가진 지도자가 필요하며 교회들이 관심을 갖고 이를 양육해야 합니다.

대사회적 섬김, 세계선교, 지도자 양육이 우리 교회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풀러튼 지역이 잘 되어야 우리 교회도 잘 될 수 있습니다.

-연제쯤 이전하시게 됩니까?

미국인교회가 새 성전으로 이전하는 9월쯤 우리가 그 교회로 가고, 중국인교회 역시 그 즈음 우리 교회로 들어 옵니다.

-이전하시면 기대하시는 바도 클 것 같습니다.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 빠른 자동차 보험 알선

“전혀라게 웃음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음주운전자들을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각종 사업체,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문의 환영

**굿모닝 보험 213.761.9990**

한국어 서비스 KEVIN YOO 24hr

3550 Wilshire Blvd. #510 Los Angeles, CA 90010



남가주동신교회가 이전하게 될 새 성전의 전경.

**LOS ANGELES ORT COLLEGE**  
NON-PROFIT ORGANIZATION  
ACCREDITED BY ACCET

◆ 한국인 상담  
그레이스 (Grace)  
Advisor@LAORT.edu | 323.966.5444  
www.LAORT.edu

고소득 직업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저소득층  
정부전액 보조금 지급(유자격자)  
- ESL Program Only -

상담필수 8:30AM~7:00PM

- 시민권 신청
- 저소득층 메디칼 신청
- FREE Food Stamp
- HEAP(Utility Ball Payment)
- Social Service
- WIA, Childcare, Transportation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 방문비자(B1, B2)를  
학생비자 F-1으로 변경 가능

유학생은 ORT학교 졸업 후 워크퍼밋과 소셜NQ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메디칼 오피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Medical Office management (AA Degree)
- 건축설계 ... Computer Aided Design & Drafting
- 의사보조 ... Medical Assistant
- 약사보조 ... Pharmacy Technician
- ESL ... English as a 2nd Language (ESL)1~6단계, 회화반
-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Business Management (AA Degree)
- 어카운팅 AAS 학사취득 ... Accounting (AA Degree)
- 그래픽, 포토샵 ... Computer Graphic & Desktop Publishing (Adobe Illustrator)

- 정부 전액보조금지급(유자격자) 학자금 보조 및 용자
- 취업추천 및 직업소개(전문 직업, 높은 취업률 보장)
- 무료 버스표, ORT 학교 장학제도 보유
- 편리한 수업시간대 : 아침반, 저녁반
- 유학생을 위한 1-20 발급 (이민국 SEVIS 인정 대학, 소셜 넘버가능)
- 교수진 : 전원 남녀 미국인교수

www.LAORT.edu

Los Angeles : 643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48 (Wilshire+Lajolla) | New York : Forest Hills Tel. 718.261.5800  
Van Nuys : 14519 W.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Tel. 818.382.6000 | Chicago : Skokie Tel. 847.324.5588

# 제3의 연합기구, 교단 총회 결의 없인 불가

## 가칭 한교연 설립 앞두고 법적·절차적 하자에 대한 비판 고조

가칭 '한국교회연합'(이하 한교연) 설립총회가 오는 29일로 예고된 가운데 '연합기구를 각 교단 총회 결의 없이 만드는 것이 법적·절차적으로 옳으냐'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 문제는 한교연 설립이 공론화된 후 예상 통합측 내부에서 가장 먼저 제기된 바 있다. 통합측 '한기총 탈퇴를 위한 예상 대책위' 대표회장 이명남 목사는 이달 초 한교연 설립을 반대하면서 "연합사업의 문제는 한 회기의 총회장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제3의 기구 조직을 주동한다면) 현 임원회는 교단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넘어서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목사가 언급한 '교단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일'이란, "(한기총에 대한) 행정보류와 분담금 납부 유예"다. 통합측은 지난해 제96차 총회에서 이같은 결의를 했었다. 즉 지금 통합 임원회가 제3의 연합기구 설립에 동참하는 것은 총회의 결의를 넘어서는 일종의 '원권'

이라는 해석이다. 예상 통합측 정치부장을 지낸 이정환 목사(교회법연구소원 원장) 역시 "(총회 임원회는) 총회가 결의해 위임한 안건 외에 결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목사는 "(통합측의) 한기총에 대한 결의는 '개혁이 여의치 않을 경우 행정보류한다'였다"며 "따라서 임원들은 그것 외에 다른 것을 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어기고 한교연 설립에 참여하면 당사자들은 교단 내에서 소송까지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목사는 "시급한 안건들에 대해 총회 임원회가 미리 처리하고 그것을 추후 총회에 보고해 추진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새로운 안건에 관한 것"이라며 "한기총 관련 안건은 이미 총회 결의가 있었기에 임원회가 (한교연 설립 참여와 같은) 더 이상의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일각에서 "한교연 설립에 임원회가 미리 참여하고 이를 향후 교단 총회에 보고할 수 있다"고 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예장 고신 사무총장인 임종수 목사도 "임원회는 총회가 위임한 안건만 다룰 수 있다. 임원회엔 총회를 대신해 결정할 권한이 없다"며 "한교연 뿐 아니라 어떤 단체라도 교단이 그 단체에 가입하려면 총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절차고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임 목사는 또 "한교연 설립의 강행은 한국교회의 불행"이라며 "(한교연 설립을 주도하는 이들에겐) 제3의 단체를 만들 만한 명분이 없다. 한기총이나 한장총 등 이미 존재하는 연합기관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말하고, 혹 불만이 있어도 그 안에서 개혁을 외쳐야지 밖으로 나와서 새 단체까지 만드는 것은 오히려 한국교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기총 총무를 역임한 바 있는 박천일 목사는 "한기총이 생겨날 당시 설립을 주도했던 한경직 목사 등 교계 지도자들은 심사숙고를 했고, 한기총 가입 등 모든 절차에서 교단 총회를 거쳤다"며 "그러나 지금 한교연은 이런 단계가 생략돼

있다. 한기총을 개혁하려면 내부에서 해야 밖으로 나가는 것은 잘 못이다. 한기총은 어떤 이유에서든 나눠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비판에 대해 한교연 설립에 참여하고 있는 예상 백석측 총무 이경욱 목사는 "우리(백석측 임원회)는 이미 다 실행위원회에서 전권을 위임받았기에 (총회를 거치지 않고 한교연에 가입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교연에 참여하는 다른 교단들도 그같은 절차를 거쳤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이번 한교연 설립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와의 통합을 위한 수순이며, 이는 오는 2013년 제10차 세계교회협의회(WCC) 부산총회를 위한 포석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 교 관계자는 "WCC 총회에 보다 많은 교단들을 참석시키기 위한 것이다. 한교연 관계자들이 한기총을 비판하는 것도 결국엔 WCC를 반대한 한기총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자유총연맹

## 신천지 이만희 씨가 기독교 대표?

### 종교특별위원회 2012년 범종교인 신년하례식

9일 열린 한국자유총연맹(회장 박창달) 종교특별위원회 2012년 범종교인 신년하례식에 기독교 대표로 신천지 이만희 씨가 참석하는 일이 벌어져 파문이 일고 있다.

한국자유총연맹은 정부 자금으로 운영되는 3대 관변단체 중 하나이며, 자신들을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선진한국 건설을 위해 앞장서 온 대한민국 유일의 이념 운동단체'라 소개하고 있다.

이날 신년하례식에는 이만희 씨를 비롯해 인공 태고종 총무원장 김동환 전 천도교 교령, 도

교 김중호 도장, 이슬람교 신민종 이사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지일보에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으며, 이 자리에서 이만희 씨는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으로 소개됐다.

이 자리에서 이만희 씨는 지난 2008년 MBC PD수첩 보도와 관련해 "자기들이 저지른 짓을 뒤집어 씌운 것"이라며 "반론 보도가 신천지 인터넷방송을 통해 하시 나가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대용 기자

## 한기총 홍재철 대표회장

## "목회자 납세, 자울에 맡겨야"

###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입장 표명



홍재철 대표회장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홍재철 대표회장이 23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최근 한국 사회에서 일고 있는 종교인 과세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홍재철 대표회장은 "교회로부터 목회자가 받는 돈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일하고 받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성도들을 돌보고 부당한 봉사과 회생에 교회가 감사해서 드리는 것으로 월급이라 말하지 않고 사례비·은급비라고 한다"고 발언을 열었다.

홍 대표회장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말

한다"며 "종교인 과세 문제는 오랜 쟁점이지만, 이종과세 논란이 있어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에 5만 5천 교회가 있지만, 4만 5천 교회가 미자립교회로 전체의 80% 가까이가 어차피 과세점에 도달하지 않고, 나머지 20%도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더러 낼 형편이 되지는 분들은 이미 내고 계신다"며 "가톨릭과 불교와는 달리 기독교는 어디서 도움을 받아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개혁하는 '자생력 없는 교회'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홍재철 대표회장은 "한기총 차원에서 세금납부 운동을 벌이기보다는 지금처럼 교회의 자울에 맡겨두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한다"며 "목회자들은 대부분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고 사회 기증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그들을 돕고 사랑으로 감사주다 가진 것 없이 은퇴하는 '그늘진 곳의 최고 애국자'인데, 과다하게 세금 문제로 논란을 일으켜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닌가 한다"고 전했다.

홍 대표회장은 기해재정부 장관이 총선과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종교인 과세 관련 발언을 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대용 기자

# 한기총, 부활절연합예배 단독 추진하기로 확정

## "NCCK측은 함께할 뜻 없는 듯" ... 5인 준비위원회 구성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홍재철 목사)가 2012년 부활절연합예배를 단독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고 5명으로 조직된 준비위원회를 구성, 예배 장소와 순서자 선정 등 전권을 위임키로 했다. 한기총 산하 각 교단 총무들은 김운태 총무 주재로 26일 한기총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그간 한기총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는 보수 진보간 연합을 모토로 부활절연합예배를 함께 드려왔다. 공동 주최로 하되 주관은 한기총과 NCCK가 한 해씩 번갈아 맡는 식이었다. 지난해 NCCK가 주관했고 올해는 한기총이 주관할 차례다.

그러나 최근 '한기총 정상화 비대위' 참여 교단들을 중심으로 '2012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가 구성되고, 이들이 한기총과 NCCK의 이름을 모두 뺀 '교단 연합' 부활절연합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파열음이 일었다.

'교단 연합'이라고 하지만 준비위 구성을 보면 NCCK 관련 인사



부활절 예배 준비를 위한 한기총 모임이 진행되고 있다.

들이 상당수 포진해 있다. 한기총은 이 같은 움직임을 결국 비대위측과 NCCK측이 별도로 부활절 예배를 드린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날 김운태 총무는 "한기총은 예년과 같이 부활절 예배를 연합으로 드리지(NCCK)에 제안을 했었다"며 "그러나 (NCCK에는) 한기총과 (부활절 예배를) 같이 할 뜻이 없어 보였다. 교단 연합으로 한다는 얘기가 되풀이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기총 단독으로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밝혔다.

이에 총무들은 5명으로 구성된 부활절 준비위원회를 통해 부활절 예배 관련 모든 사항을 준비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5인은 임종수 목사(예장 고신), 김홍성 목사(사기하성 통합), 이병일 목사(장 중앙), 최정봉 목사(예장 개혁총연), 도용호 목사(예장 호헌B)로 결정됐다. 송태섭·황규철·강구원·이재형 목사가 각각 동원, 예배, 대외협력, 홍보보좌를 맡기로 했다.

특히 예배분과를 이끌 황규철 목사(예장 합동 총무)는 이날 "한기총과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기창 총회장님을 비롯한 예

장합동 임원들의 결의"라며 "준비위측에도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교단과 총회장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준비위측은 합동 이기창 총회장이 공동대표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기총은 여의도순복음교회 회가 당초 예배당을 부활절연합예배 장소로 제공하기로 약속했다가 번복했다면서 항의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임종수 목사(예장 고신 총무)는 "이영훈 목사가 홍재철, 김자연 목사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여의도순복음교회를 부활절 예배를 위한 장소로 허락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 교회 당회장이 연합기관 대표들과 한 약속을 어긴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운태 총무도 "이영훈 목사가 NCCK 김영주 총무와 통화 한 후 (장소 대여를) 최종 확인해 줬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의도순복음교회측은 "한기총과 NCCK가 함께할 경우 장소를 제공하기로 했던 것"이라며 입장을 번복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진영 기자

부활의 영광과 권능이 우리의 삶 속에!

# 2012년 부활절 연합 새벽예배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변영익 목사)의 주관으로 4월 8일 주일 오전 5시 30분에 동양선교교회(담임: 박형은 목사)에서 L.A. 지역 부활절 연합 새벽예배가 있을 예정입니다.

죽음 권세를 이기고 사신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어진 사명을 회복하는 예배를 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남가주교협 수석부회장 진유철 목사의 사회로 설교에는 남가주교협 회장 변영익 목사가 맡아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일 시 : 2012년 4월 8일 (주일) 오전 5시 30분

장 소 : 동양선교교회 (담임: 박형은 목사)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323) 466-1234 www.omc.org

특별찬양 : 남가주장로성가단

문의 : 총 무 박세헌 목사  
323-404-3147 jesusheaven@hotmail.com  
사무국장 양경선 목사  
213-255-1725 sammoolyang@gmail.com

### 특별기도

1. 미국의 신앙부흥과 경제부흥을 위하여
2. 조국의 평화와 민족 통일을 위하여
3. 이민교회의 부흥과 이민사회 번영을 위하여
4. 동포사회 복음화와 세계선교를 위하여



장사: 변영익 목사 (남가주교협 회장)



##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in Southern California

981 S. Western Ave. Suite #401, Los Angeles, CA 90006  
Tel.(323)735-3000 Fax.(323)735-3111 www.theckc.org

# 역할분담으로 부흥을

## 사도행전 6:1-7



장재효  
서울 성은교회 목사

행6:1 그 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지므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2 열 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 놓고 공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3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4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라 하니  
 5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콜라를 택하여  
 6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7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 1. 소망의 기쁨으로 충만하라

외국에 나가서 나그네로 떠돌아다니던 유대인들은 장사를 주로하여 항상 돈이 있었고 그것이 자신의 나라에서 사는 것 보다 형편이 나아졌습니다. 그렇게 해외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던 그들이 철철질이 되어 절기를 지키고자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되고 뜨거운 감동이 있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회개함으로 육신이 장사하여 돈 벌어서 치장하고 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보려고 했던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허황된 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영적인 소망이 가장 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계속되어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소망의 기쁨을 인하여 은혜가 충만하여지자 육신이 본능적으로 원하는 삶을 살다가 이제 영적인 소망을 위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육신을 돌보이게 하기 위하여 치장했던 팔찌나 반지, 목걸이나, 귀걸이 등을 다 빼내어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신령한 교제를 계속하던 중 믿음이 성장함에 따라 지난날의 생활이 더욱 부끄럽고 후회스런 삶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의 뜨겁게 감동하심으로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만족한 은혜가 차고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은혜와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으로 갖게 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아직 영적인 성장이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전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아직 영적인 수준이 되지 않아 성과를 보지 못하여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앞장 세워 이 일을 감당하게 함으로 더 많은 사람이 구원 얻을 수 있게 해야겠다는 생각에 자신들이 가진 재물이나 옷가

지들을 가져다 사도들에게 내어 놓은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에 사는 유대인들은 너무나 가난하여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외국에 나가 살다가 절기를 지키기 위해 돌아온 사람들은 고급스런 옷과 재물이 제법 많았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헬라파, 즉 외국에 나가 살다 들어온 과부들에게 그들이 내어 놓은 것들로 봉사하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에 사는 사람들의 형편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 구제를 하게 되고 그러던 중 이 과부들이 속상해하거나 시험에 드는 경우가 생기면서 은혜 분위기를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성령이 역사했던 은혜 충만한 분위기가 아닌 금방이라도 독설이 뱉어지고 험상궂은 얼굴 표정으로 바뀔만한 안 좋은 분위기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때 사도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외국에 나가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 생활하고 어렵게 돈을 벌며 살다가 이렇게 고국에 왔으면 따뜻하게 품어주고 베풀어 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어 주고도 욕을 먹는 상황이 생겨 은혜는 메말라 버리고 안 좋은 감정에 속을 끓이고 있는 것입니다.

### 2. 역할분담의 기준(일꾼의 기준)

물질에 대한 기대심리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영적인 기대심리가 우선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사도들은 이대로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열 두 사도가 모두 모여 의논을 한 뒤 모든 신도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과 영적인 성과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제쳐놓고 사람들에게 물건과 돈을 나누어 주는 일로 시간을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되고 신경을 많이 쓰게 되니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인 것 같다고 말하고 그들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남들로부터 제대로 믿는 자라고 칭찬되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고 말합니다.

구제와 봉사하는 일은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적으로 힘을 쏟겠다고 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소망이 충만한 것이고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오로지 예수님의 입장을 생각하고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기 마련이기 때문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택하라고 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칭찬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말씀에 의지하고 성령이 이끌려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항상 일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을 더 잘 섬기자는 쪽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 일곱을 택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일꾼 명을 안수하여 집사로 세웁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를 뽑을 때도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고 하늘소망의 기쁨이 충만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보다 뜨겁고 그 교회의 목자를 예수님과 같이 생각하고 잘 협력, 봉사하여 그 교회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드리기 위한 사명감이 자기 생애를 불태워 헌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집사라는 직분은 헬라어로 '디아코너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섬기는 자, 종, 봉사하기 위하여'란 뜻입니다. 영어로는 deacon(디콘)이라고 합니다. 장로는 elder(엘더)로 '믿음으로 늙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절대 신앙의 변동이 있으면 안되며 성질이 거침나지 못하여 믿고자 하는 자에게 상처를 주거나 그 은혜를 떨어뜨리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은혜에 꼭 짐겨 살아온 자들로 그들의 생활 속에서 예수님만 보아야 합니다. 안수집사도, 권사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예배에 지각을 한다거나 이야기를 나눈다거나 기도 중에 돌아 다닌다거나 하는 행위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배를 신령과 진리로 경건하게 드릴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믿는 사람의 모습이며, 인격이며, 예절입니다.

### 3. 역할분담의 이유

초대교회 일꾼 집사를 세우고 교회가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 분위기를 위하여 계통과 질서를 위한 조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조직의 직급으로 계통질서를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은 혼란을 일으켜 모르는 사이에 죄짓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마귀는 우리의 이성을 빼앗아 분별력을 상실하도록 만듭니다. 자기중심의 현실적인 이기심리 때문에 우선 챙기고 보자는 것으로 많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손가락질 받고 욕을

먹음으로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직분을 빙자하여 사기치고 돈을 빌려 갖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이것은 양의 털을 쓴 이리떼입니다. 이런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교회에서는 되도록 돈을 빌리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호리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흑여 남의 돈을 빌려 갖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죽을 때까지라도 꼭 갚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역할분담을 통하여 목자는 목자본연의 사명에 열중하고 그 목회성과로 인하여 늘어난 일거리들을 목회방침에 입각하여 목자를 도와 협력하며 봉사하라고 세우는 것이 직분자들입니다.

이 직분은 감투나 명예가 아니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신을 낮추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덕을 끼치는 일로 봉사하고 사랑의 제물이 되어 희생하고 수고하라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그 본을 보이신 것 같이 우리가 세워질 직분자들에게 그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설교제목과 같이 역할분담으로 부흥되는 본이 예루살렘교회입니다. 사도행전 6:8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했습니다.

세워진 일꾼 집사들의 역할분담으로 사도들은 더 많은 시간을 깊이있게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 권세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힘있게 선포하게 되니 믿게 되는 사람이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즉 유대교의 지도급 인물들이 자신들의 종교가 잘못된 줄 알고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구원되는 진리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각자의 역할분담으로 맡은바 소임을 다할 때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설교

한국선교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10분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연합신문	3면 설교	"말씀에 이끌리며 성령께 쓰임받자"	
해외선교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7시	목요일 낮 12시 주일 오후 10시30분	CTS TV 수요일 토요일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미국 기독교일보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20분~11시50분		5면 설교문 온라인 칼럼설교 오프라인 칼럼설교 인터넷신문 설교문

성은교회 담회장, 성은동산 원장, 예정중경 총회장, 바른목회연구원 원장,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초대 총장,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총재, 선목회 회장.  
 You Tube로 지구촌 어디서든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 시청 가능함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TEL. (02) 420-3351-3 / HP. 011-222-5591



## 세금무료상담

###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 사업체 비영리단체 설립 해산 및 장부정리(Quickbook)
- 개인 및 사업체에 맞는 절세방법
- 크레딧카드 빚, 부동산관련 세금문제해결(1099-C)
- 저소득층 세금환급(EITC)
- Payroll & Sales Tax 보고(Paycheck service)
- IRS, SBOE, EDD, FTB 세금문제해결(Levy & OIC)
- ITIN(개인 납세번호)신청 및 공증
- 정확한 서비스와 저렴한 수수료

**이정은 CPA**

**Tel (213)387-2004**  
 Email상담환영 : chungleecpa@hotmail.com  
 3130 Wilshire Blvd. Ste 405, Los Angeles, CA 90010  
 Tax season 연장근무!!  
 (평일 9 am - 8 pm, 토요일 10 am - 5 pm)  
 (무료주차!! Free Parking!!)

## 양로병원 노인들을 위한 찬송가 경연대회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장애우사랑교회에서 12년째 양로병원 봉사를 하다 보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치매에서 벗어나고 외로움에서 이기기 위해 매일 찬송가를 암송함으로 할 일이 있다는 소망을 드리기 위한 찬양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회를 빛나게 하실 심사위원들(5명) 봉사자분들을 초청하오니 바쁘신 시간을 나누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찬양대회 장소와 시간

- **장소 : 중앙양로병원 Mid Wilshire Health Care Center**  
 6월 16일(토) 오전 10시 / 12월 15일(토) 오전 10시  
 676 S. Bonnie Brae St, LA, CA 90057

**1등** 1명에게는 100불 상당의 물품      **2등** 2명에게 각각 50불 상당의 물품  
**3등** 3명에게는 각각 30불 상당의 물품      \*\*\* 그리고 찬송가를 모두 암송한 분들에게는 10불 상당의 물품이 주어집니다. \*\*\*

\*상금 및 상품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체크이름 : Loving Church of the Disabled => L.C.D

### 협찬

필그림 오케스트라, 남가주교회협의회, 남가주환인목회회, 남가주 효호예지부, 벨엘장로교회, 엘에이사랑의교회, Horizon신학대학교, 기독일보, 한솔종합보험, 크리스찬헤럴드, 라디오코리아, 마동환번호사그룹, 백보한의원, Allstar, Precision, 최진욱번호사, 재미남가주황해도민회, Los Angeles Downtown Lions Club

### 장애우사랑교회

**☎ 연락처 : 213-705-0404 / Fax : 213-251-8930**  
 주소 : P.O.Box 742017 Los Angeles, CA 90004

# 한반도 통일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 김현욱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초청, 종교지도자 간담회 열려

김현욱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초청 종교지도자 간담회가 23일 오후 6시에 옥스포드 팰레스호텔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남가주교협 회장 변영익 목사는 “남북통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한다”며 “성경의 역사를 놓고 보면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 통일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교협 이사장 서영석 장로는 “LA 평통 위원으로서 내가 느끼는 것은 고국의 정권이 바뀔 때마다 통일에 대한 정책이 바뀌게 되는데, 그래서 평화통일이 되겠다는 가라는 우려다”라며 “정권을 초월해서 통일정책이 잘 추진되도록 정부에 건의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현욱 수석부의장은 “평통은 통일을 추진하는 중요한 대한민국 헌법기관으로서 한반도 통일은 민주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대통령과 정권에 따라서 평통이 도구로 쓰여



종교계 지도자들과 민주평통 김현욱 수석부의장과의 간담회가 이뤄지고 있다.

진다면 문제가 된다. 이것은 현재 국회에서도 논의되고 있다. 본질적으로 평통의 정책기조는 변화되지 않는다. 현재 정부는 탈북자들의 인권과 목소리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간담회는 ‘한반도 통일정책’이라는 주제로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미기총 회장 송정명 목사, 남가주교협 회장 변영익 목사, 총무 박세현 목사, 남가주목사회 회장 김영대 목사, 기독교사회참여 대표회장 박종대 목사, 벨리다메교회 문광현 목사, 법왕사 현일 스님, 불교연합회 회장 반성 스님 등 30여명의 종교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토마스 맹 기자

## 동문교회 4대 담임 최태우 목사 위임



동문교회가 창립 24주년을 기념하며 동시에 4대 담임으로 최태우 목사를 맞이했다.

동문교회가 창립 24주년 감사예배 및 제 4대 최태우 담임목사 위임식을 열었다.

예배는 사회 이춘준 목사(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LA노회장/장대학교), 기도 강봉호 목사(동문교회), 성경봉독 박영수 장로(동문교회), 설교 황은영 목사(국제개혁신학대학교 총장), 권면 정교영 목사(재미총신 총동문회 부회장), 김성일 목사(빅토빌 예수마음교회), 축사 박신욱 목사(미

주복음방송 사장), 광고 민병창 장로(동문교회), 축도 김만수 목사(새생명선교회) 순으로 진행됐다.

담사한 최태우 담임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함께 기도하며 노력하자”고 말했다.

동문교회: 19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문의: 213-483-6625

토마스 맹 기자

## 글로리아찬양단 부활절 칸타타 ‘십자가상의 칠언’

다음달 7일 오후 7시 30분 세계대교회(이상남 목사)에서 글로리아 찬양단(단장 박요한 목사)이 준비한 부활절 칸타타가 ‘십자가상의 칠언’이라는 주제로 있을 예정이다. 글로리아찬양단은 지난해 교역자들로 구성돼 창립됐고 지휘는 석다니엘 집사가 맡고 있다.

찬양단 관계자는 “이번 칸타타는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일곱마디에 대해서 찬양으로 표현한 것으로 특별히 소프라노 지경, 테너 이은파, 베이스 장진영 씨가 참여하게 되고, 세계대교회 찬양대와 드림오케스트라, 드림어린이합창단이 동참한다.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를 나누기 바란다”고 전했다.

문의: 213-273-5919 빅터 박 기자

## ‘지저스 지저스’ 임관규 무용단 공연 예정

기독교 문화와 한국 문화가 이상적으로 어우러진 ‘지저스 지저스’ 임관규 무용단 공연이 내달 7일 토요일 오후 7시 토렌스조은교회 본당에서 열린다.

무용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중요 무형문화재 제 92호 태평무 이수자인 임관규 집사가 각색한 한국 전통 창작 무용이라는 문화의 뜻을 입혀 세상에 전한다. 공연은 제 1막

‘거룩한 성전’으로 시작해 제 18막 ‘사명’까지이다.

임 집사는 한양대학교 무용학과 졸업(1975), 중앙대학교 무용교육대학원 졸업(1985), 현재 캘리포니아 트리니티대학교 무용과 교수로 있고, 무용단은 2000년부터 미주에서 활동을 시작해 오늘에 이르렀다.

문의: 323-819-5001

빅터 박 기자

## 제 4회 부활절 나눔 축제 ‘Easter Hope Festival’

“부활하신 주님의 소망과 사랑을 어떻게 이웃과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다 2009년부터 시작돼 매년 이맘때면 어려운 이웃에게 음식과 물건을 나누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활절 나눔축제 ‘Easter Hope Festival’이 내달 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남가주사랑의교회 본당과 파킹랏에서 개최된다.

이 행사는 성도들이 도네이션으로 마련한 음식과 옷, 담요, 수건, 핸드백 등 생필품들을 나누는 행사지만 음악

회 등 다양한 문화 행사도 마련돼 있다고 한다. 행사 관계자는 “작년에 어떤 사람은 이 행사를 1년동안 기다렸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어머니는 쌍둥이가 있어 더블 스트roller를 사고 싶어도 못 샀는데 이 행사를 통해서 받게 돼 울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이것이 연례행사라면 끝까지 말고 더 잘 준비돼 주님의 사랑을 통해 지역사회에 이웃을 전도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빅터 박 기자

## “믿음의 유산” 을 우리 후손에게

나성영락교회가 교육부 교사 컨퍼런스를 ‘믿음의 유산’이란 주제로 2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통성기도, 문화와 영성, 유아기의 중요성과 성경학습 활동의 교육적 가치, 인물 중심 한국교회 역사, 정체성 연구 등의 주제로 열렸다. 기조 연설자로는 이학준 교수(풀러신학교)가 나섰다.

“유아기의 중요성과 성경학습 활동의 교육적 가치”란 주제로 박명선 교사가 “어린이 교육은 전인격의 포커스를 두는 교육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박 교사는 “어린이들은 공이 구르는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공을 입으로 맞고 보면서 느낌을 통해 무엇인지 인지한다”며 “어린이들 발달 수준에 맞게 잘 가르쳐야 한다. 놀이는 어린이들의 정서적 기쁨, 지성, 인지를 기르는 사회적 수단이 된다. 또한 다양한 환경과 많은 활동

## 나성영락교회 교육부 교사 컨퍼런스 개최



박명선 교사가 어린이 사역의 중요성을 참석자들에게 일목요연하게 전달했다.

을 통해 지혜로워질 수 있고 경쟁하면서 함께 사는 지혜,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 협상하는 법을 배운다”고 말했다.

토마스 맹 기자

## 마른 막대기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 LA우리교회 창립 3주년 기념, 부흥집회 개최

LA우리교회(니콜라스 리 목사)가 창립 3주년을 기념해 부흥집회를 16일부터 19일까지 케네디커뮤니티스쿨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 부흥집회에는 기독교대한하나님의 성회 총회장을 역임한 박성배 목사, 서울대치순복음교회 한별 목사, 서울 경동순복음교회 이상철 목사가 강사로 초청됐다.

‘믿는 자의 표적’(막16:17-18)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박성배 목사는 “성

령님을 내 인생의 멘토로 모셔야 한다”며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 입에서 하는 말로 말씀을 증거할 수 없다. 성령 세례는 경험이지 이론이 아니다. 예수님을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한번쯤은 미치도록 믿어야지 역사가 일어난다”고 강조했다.

박 목사는 교회에서 성령을 받는 비결로 △제일 앞자리에 앉기 △목이 갈라지도록 기도하기 △웃기 △도록 열성적으로

기도하기 △예배에 늦지 않게 일찍 참석하기 △믿음이 없으면 소리라도 크게 지르기 △성령님께 인생을 맡기기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로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며 “성령님을 내 인생 축복의 멘토였다고 간증할 수 있는 인생이 되자”고 덧붙였다.

문의: 213-382-4456

토마스 맹 기자

Law Offices of K. J. Lee & Associates

**자녀들 얼굴 볼때마다 힘드신가요?**

**파산법 이민법**

office@kjllaw.com

- 차압방지/장기거주**  
고객님의 편에서서 가치가 크게 떨어지고 월 모기지 납금이 힘든 집에 합법적으로 최대한 장기거주가 가능하게 해드립니다.
- 파산법 및 용자 재조정** [ 파산을 통하여 집과 비즈니스를 지키고 빚을 탕감하십시오. ]  
파산 챕터 7, 11, 13  
크레딧카드, 개인,비즈니스, 병원비 용자 삭감  
집의 차압 및 슛세일로 남은 용자금
- 이민법** [ 취업이민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  
취업이민(EB1, EB2, EB3)  
취업비자 (H-1B)  
투자비자(E2)  
가족초청이민

**파산 CH. 7 SPECIAL \$999\***

**이건증 변호사그룹**    **무료상담 : 213.387.1500**

3435 Wilshire Blvd., Suite 1840, Los Angeles, CA 90010(에쿼티빌딩 18층)



OC 지역 한인교회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기자회견에서 동성애 교육 반대에 뜻을 모았다. 사진에서 관계자들이 서명용지를 들고 있다.



다민족교회의 지도자들도 동성애 반대에 함께 한다.

# OC 모든 한인교회 “동성애 교육 반대” 외친다

캘리포니아에서 승인된 SB48 법안에 반대하는 PRE 및 Class Act 법안 서명운동이 남가주 교계에서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오펜지카운티 소재 모든 한인교회에서 서명운동이 전개된다.

22일 오전 OC교협(회장 엄영민 목사)은 은혜한인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인들이 동성애 교육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교협회장 엄영민 목사는 “OC 모든 한인교회가 연합해서 서명운동에 참여하길 호소한다”고 밝혔다. 경경회장 박용덕 목사는 “서명 자격자는 시민권자이면서 유권자 등록을 한 사람에 한한다”며 “유권자 등록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등록과 동시에 서명을 할 수도 있다. 유권자 용지는 DMV에서 구할 수 있는데 우표를 붙여야 해서 조금 불편하다. 대신 1300 S. GRAND AVE. SANTA ANA의 C건물에서 우표를 안 붙여도 되는 유권자 용지를 500장 이상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명운동에 대해 이날 한인 목회자들의 관심이 적은 것을 우려하고 이를 촉구하는

의견이 제기됐다. 민경엽 목사는 “먼저 교회가 동성애에 대해 입장을 정리해야 된다”며 “동성애자를 사랑해야 하지만 동성애를 용인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번 서명운동은 PRE 법안은 4월 15일 까지, Class Act 법안은 7월 초까지 진행된다. 다만 65만 서명이 모일 경우 바로 제출할 수 있다. 서명은 미국교회와 한인교회 및 다민족 교회에서 협력하고 있다.

PRE 법안은 'Parental Right in Education'의 약자로 부모가 원하지 않을 경우 학교로부터 이뤄지는 교육 내용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만약 동성애 교육이 자녀에게 이뤄지려 할 경우, 부모가 거부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의안은 동성애 뿐 아니라 공립학교에서 이뤄지는 교육 내용에 부모가 관여할 수 있게 보장하는 발의안이므로 동성애 문제를 넘어 공립학교 교육에 관심있는 부모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

Class Act는 Children Learning Accurate Social Sciences Act의 약자로 사회과학을 자녀들이 정확히 배우게 하자는 취지

의 법안으로 동성애, 양성애, 트랜스젠더를 교육함에 있어서 그들의 사회 기여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목표다.

남가주 교계는 PRE와 Class Act의 승인을 위해 50만4760명 서명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 두가지 발의안에 각각 할당되는 서명이 50만 이상이지만 두 발의안을 동시에 서명받음은 통해 단시간 내에 두가지 발의안을 모두 통과시키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 교계는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무효표를 감안해 65만 내지는 70만 표를 받아낸다는 계획이다. 이것이 승인될 경우 SB48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더라도 이를 거부 혹은 일정부분 삭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2개의 발의안에 필요한 서명이 모이면 11월에 주민투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탄원서 작성은 PRE 서명용지 경우 www.TVNEXT.org(Traditional Value for Next Generation-다음세대가치관 보호)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으며, Class Act 서명용지는 Classact2012.com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토마스 맹 기자

# 도덕성 회복 위해 다민족교회도 “동성애 반대”

## 남선협, 다민족교회와 연합해 기도모임 가질 예정

SB48 법안을 반대하는 PRE 및 Class Act 법안 서명운동이 다민족교회와 연대해 전개된다.

23일 오전 미주복음방송에서 남가주 선교단체협의회(대표 김정환 선교사, 이하 남선협)는 다민족교회 지도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인도네시아, 중국 교계 지도자들이 참석했다.

김정환 선교사는 “다민족 커뮤니티와 연대해서 동성애 교육을 반대하는 운동을 펼칠 것”이라며 “교계와 다민족교회들이 연합해서 기도하고 서명운동을 확장 시키겠다”고 밝혔다.

남선협은 PRE 법안 서명이 마감되는 4월 15일 전에 연합 기도모임을 OC 지역

교회에서 가질 계획이다.

백운영 선교사는 “한국,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의 이민자들이 한 목소리를 낼 때 주류 사회에서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남가주교협 회장 대니 목사는 “동성애 교육의 문제는 LA를 벗어나 전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서 막아야 한다”고 했다.

중국교회 지도자 박목사는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일들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기도운동을 펼쳐야 한다”며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하다”고 전했다.

토마스 맹 기자

# 웨이스기독대학 · 신학대학원 개강예배 드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주의 영광을 위해”



웨이스기독대학신학대학원에서 개강예배가 거행되고 있다.

웨이스기독대학신학대학원 (Faith Theological Seminary & Christian College, 학장 양병삼 목사)이 개강예배를 25일 오후 4시에 드렸다.

이날 예배는 대표기도 정광수 목사

(Th.D. 과정), 경배와찬양 예안선교회 찬양팀, 기도 김현숙 권사(이사), 말씀봉독 김영호 목사(예안선교회), 말씀 이장수 목사, 헌금기도 박은우 전도사(Th.D. 과정), 광고 및 학교 소개 이정건 목사(교

수), 축도 우상범 목사(교수)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정건 목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로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이라며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나아갈 때 학교와 학생들 위에 주의 은혜가 가득할 것이다. 기쁨으로 열심히 공부하길 바란다”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웨이스기독대학신학대학원은 친구약 성경의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성경 중심의 보수주의 개혁신학을 교육하는 대학이다. ACSI(Association of Christian Schools International) 정회원에 가입되어 있다.

제1 캠퍼스: 3251 W. 6th St. #101 Los Angeles, CA90020 제2 캠퍼스: 6882 Selma Ave. Hollywood, CA90028 문의) 213-503-5330 토마스 맹 기자

# UBM교회 창립 1주년 기념 및 성전 입당 감사

## 매일 만사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 되길

UBM교회(앤드류 김 목사)가 지난 25일 창립 1주년을 맞이해 새 성전에 입당하고 감사예배를 드렸다.

설교는 사랑과진리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벤자민 오 목사가 전했다. 오 목사는 “주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 가운데 힘을 부어 주신다”며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통해 매일 직면하는 유혹을 이겼듯이 우리도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속량하사 자녀로 삼으셨으니 우리는 매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도전했다.

한편, 예배 때에는 2명의 안수집사가 임직해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기도 했다.



UBM교회 성도들이 1주년을 기념하고 있다.

기념예배 이후에는 기념 케이크를 자르며 온 성도들이 즐겁게 교제했다.

한편 이 교회에서는 오는 29일 목요일부터 31일 토요일까지 매일 오후 7시 30분 데이빗 켈리 목사 초청 특별집회를 연다. 켈리 목사는 Holy Segments 설립자로서 예언 사역을 하고 있다.

문의: 562-903-2600 www.ubmchurch.com 빅터 박 기자

# BAK KUNG 白백궁宮

## KOREAN B.B.Q

백궁은 최상급의 고기와 최고의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b>런치 스페셜</b> <b>\$7<sup>99</sup></b>	<b>고등어+된장 이면수+된장 잡채+된장</b> <b>\$9<sup>99</sup></b>	<b>오징어+된장 김치전골</b> <b>\$13<sup>99</sup></b>	<b>갈비탕 육계장 내장탕</b> <b>\$5<sup>99</sup></b>	<b>콩비지찌개 비빔밥+된장</b> <b>\$6<sup>99</sup></b>	<b>돌솥비빔밥+된장</b> <b>\$22<sup>99</sup></b>
<b>고기무제한 All You Can Eat</b> <b>Lunch Only 11am-5pm</b> <b>차돌 소스삼겹살 소불고기 닭불고기 매운양념닭갈비 오징어</b> <b>소주 소주1병 \$6<sup>99</sup></b>		<b>오징어 쭈꾸미 곱창 대창 막창 닭뎡집 닭염통</b>	<b>B+ 돼지불살구이 L양념갈비 L생갈비 허밀구이 왕새우구이(2인/10pcs) 스키구이(힘들)</b>	<b>C+ 꽃살(2인/10pcs) 양념왕갈비 왕갈비 양줄구이</b>	

**BAK KUNG KOREAN B.B.Q**  
 3700 W. Olympic Blvd. #100 Los Angeles, CA 90019  
**323.734.9292**

# 이민목회 독특성에서 한인신학교 비전 찾아

## 무술로 치유하며 선교도 한다

### 미주장신대학교 이상명 총장 인터뷰



이상명 총장

이상명 교수가 총장에 부임한 이후, 미주장신대학교에는 개혁의 바람이 불고 있다. 남들이 흔히 생각하는 행정적 쇄신이 아니라 한인신학교의 한계를 뛰어 넘고 한인신학교만의 강점을 극대화하려는 비전 쇄신이다. 그가 총장에 부임하며 내건 비전은 총 5가지다. 양질의 신학 교육, 역동적인 영성 교육, 글로벌 리더십 교육, 인문학적 교양 교육, 실제적 이종언어 교육이 바로 그것이다.

과연 수백년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신학의 턱을 한인신학교가 넘을 수 있을 것인가? 졸업생들에게서 한국교회를 뛰어넘는 영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들이 세계로 나아가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한인신학교라면 누구나 공유할만한 난제들에 대해 이상명 총장과 대화를 나눴다.

**-미주장신대의 5대 비전을 역으로 유추해 볼 때, 총장께서 한인신학교의 문제점 역시 잘 알고 계신 것 같다.**

98년부터 강의했으니 18년 가까이 한인신학교에 몸담아 왔다. 내가 보고 생각하고 느낀 모든 것을 이 비전에 담았다. 그리고 이 비전을 제시하게 됐고 이 비전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한 재정 후원과 네

트워크를 마련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 중이다. 한인신학교의 어려움이나 문제에 관해서는 내가 공격적인 비판자가 된 적도 있고 또 공격의 대상이 되어 수비를 해야 했던 적도 있다. 그러나 한인신학교를 향한 나의 진지한 문제의식들을 총장으로서 내 손으로 풀어 볼 수 있게 되어 너무도 감사하다.

**-학자로서 행정가로 전환하는 데에 갈등은 없었는가?**

“내가 수많은 어려움을 뛰어 넘으며 공부한 그 마지막이 결국은 행정이나”라는 생각이 들면 때론 갈등이 생기곤 한다. 그러나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나를 낮아지도록 훈련시키신 것이라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한다.

**-미국 내에 한인신학교가 존재해야 할 목적 자체에 관한 부정적 의견도 많다.**

나는 되묻고 싶다. 미국신학교를 졸업한 1.5세대 2세대 현 한인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는가? 우리가 많은 경우를 보아 왔지만 결코 쉽지 않았다. 1세대와 겪는 갈등과 어려움에 관해서 누구라도 익히 들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으

**-영성교육도 중요한 비전으로 내걸었는데, 한국교회의 영성을 지향하는가?**

아니다. 긍정적인 영성을 지향한다는 말이 더 정확하다. 한국교회 가 가진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우리는 맑고 투명하며 다이내믹한 영성을 지향한다. 서구인들이 갖지 못한 한국인들의 좋은 영성을 잘 개발하며 지성, 인성과 결합된 깊은 영성을 추구한다. 우

리 학교는 교육 기관으로서 당연히 지성의 발전을 추구하지만 경건회나 기도회 등을 통해 학생들의 영성 개발에 집중하면서 동시에 인성적 측면을 간과하지하고자 한다.

**-한인신학교 학생들이 주로 은퇴 세대인 경우가 많다. 젊어서 신학에 뜻을 둔 이들보다는 은퇴를 전후해 목회나 선교에 뜻있는 분들이 한인신학교를 찾는다.**

그것은 10년 전 추세다. 지금 우리 학교 학생 220명 중 다수가 젊은이들이다. 그것이 미주장신대의 가장 큰 강점이자 장점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우리 학교에서 이민교회와 신학에 대해 공부하고 더 심도있는 교육을 받고자 미국신학교로 진학하기도 하고 일선 목회자로 나가기도 한다.

영어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위해 특별히 언어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펀드가 마련되면 별도 언어 훈련 프로그램도 학내에 신설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들이 이종언어를 구사하며 이민목회의 지도자로 성장할 발판을 마련해 줄 것이다.

**-참고로, 현재는 미국신학교 학생들도 노령화되는 추세에 있다. 학생 자체가 줄고 있을 뿐 아니라 신입생들의 나이까지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그에 비해 우리는 처음에는 나이있는 분들이 진학하던 학교였지만 지금은 젊은이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 희망적이지 않은가?**

**-미주장신대의 교수진에 관해서 설명해 달라.**

우리 학교는 지난해 ABHE의 정식인가를 받고 현재 ATS에 지원했으며 준회원 가입 여부가 오는 6월 발표된다. 그 과정에서 교수진의 면모를 확인해 보니 참으로 자랑할 만하다. 총61명의 교수들이 교단과 교과의 배경을 뛰어 넘어 진보와 보수, 복음주의를 아우르고 있다. 물론 교단신학교로서 교단신학을 기본적으로 교수하지만 그것을 넓게 펼쳐 통합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총장으로서 보다 좋은 교수진을 선발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훌륭한 학자를 모시기 위해 펀드도 마련할 것이고 인적 네트워크 구성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총장으로서 보다 좋은 교수진을 선발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훌륭한 학자를 모시기 위해 펀드도 마련할 것이고 인적 네트워크 구성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말씀선포를 기초로 성경과 교육, 교제를 통해 삶의 전 영역에 포괄적이고 통전적인 방식으로 세계선교의 비전을 완수하는 Vision International University의 LA 캠퍼스(VIULA)가 치유선교사 과정을 개설해 주목된다.

VIULA의 비전이 터칭과 미션의 두 날개란 점을 고려할 때, 이 과정이야말로 이 비전에 부합된다 할 수 있다. 선교사 지망자들이 선교사로 나가기 전 유용한 선교의 도구를 갖도록 실질적인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자는 것이다.

치유선교사는 말 그대로 치유를 하는 선교사다. 이길소 총장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신비한 영적 치유가 있는가 하면, 인간의 손을 사용하시는 치유가 있다”면서 “치유선교사는 후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을 이끄는 교수는 한의학박사 윤재권 교수다. 그는 합기도 9단, 종합무술 9단, 활법도 9단의 무술인이기도 하다. 그는 수십년간 무술을 연마하며 무술로서 무엇인가를 부수고 누군가를 이기기도 하지만 자신을 고치고 누군가를 도울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죽이는 살법(殺法)으로서의 무술이 아닌 살리는 활법(活法)으로서의 무술인 활법도를 창안했다.

그는 이 활법도를 연마하며 깨달은 건강치료법에 더해 각종 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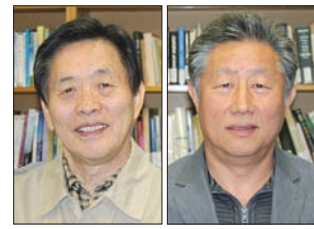
### VIULA에 치유선교사 과정 개설돼 주목

말씀선포를 기초로 성경과 교육, 교제를 통해 삶의 전 영역에 포괄적이고 통전적인 방식으로 세계선교의 비전을 완수하는 Vision International University의 LA 캠퍼스(VIULA)가 치유선교사 과정을 개설해 주목된다.

VIULA의 비전이 터칭과 미션의 두 날개란 점을 고려할 때, 이 과정이야말로 이 비전에 부합된다 할 수 있다. 선교사 지망자들이 선교사로 나가기 전 유용한 선교의 도구를 갖도록 실질적인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자는 것이다.

치유선교사는 말 그대로 치유를 하는 선교사다. 이길소 총장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신비한 영적 치유가 있는가 하면, 인간의 손을 사용하시는 치유가 있다”면서 “치유선교사는 후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활법도를 연마하며 깨달은 건강치료법에 더해 각종 과



이길소 총장

윤재권 교수

학적, 한의학적 내용을 첨가해 VIULA에서 강의한다. 예를 들면, 기존 무술의 낙법이 몸이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며 안전하게 떨어지는 기술이라면, 윤 교수의 낙법은 몸을 구부러 구르는 과정에서 척추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척추를 교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과정은 3개월, 6개월, 12개월 과정으로 나뉘어지며 이 과정을 수료하면 VIULA와 세계프로활법도연맹이 공동으로 수여하는 치유선교사 자격증이 수여된다. 각종 신학적 강의에 더해 스포츠 건강관리학, 자연요법 치료, 실기 무술치료, 재활치료 등이 이 과정에 포함돼 있다.

윤 교수는 “국가적 종교나 사회적 상황에 따라 기독교는 때론 거부될 수 있지만 누구라도 몸의 아픔을 갖고 있다. 이 몸을 치유해 주며 그 고통을 덜어주고 나누어 주며 복음을 전한다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 설명했다.

김준형 기자

### 미주성결대 ABHE 준회원 자격 획득



학교 관계자들이 ABHE 총회에 참석했다. 사진 가운데가 류종길 총장.

LA에 소재한 미주성결대학교가 ABHE(Association for the Biblical Higher Education)의 준회원 자격을 최근 열린 ABHE 총회에서 얻었다. 미주성결대는 2008년 2월 '지원자'로 자격을 얻은 후, 지난 4년간 ABHE의 심사를 받고 발전사항을 인정받아 준회원에 올랐다.

류종길 총장은 “ABHE는 다른 어느 학위 인가 기관보다 복음적이고 섬서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단체”라며 “이로서 본교 재학생

들이 미국 연방정부의 학비 용자를 받을 수 있게 됐을 뿐 아니라 전학 및 진학도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타인종으로까지 학생을 확대하는 한편, 크리스천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학과를 증설해 전문인 선교사와 문화 사역자 배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준회원 자격 획득에 더해 미주성결대는 1만6천 스퀘어피트 정도되는 종합 캠퍼스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준형 기자

평신도 · 목회자를 치유 선교사로 양성하는 최초의 선교대학 VIULA

# 치유 선교사 선교대학

HEALING MISSIONARY TRAINING SCHOOL

---

**소개의 말씀:**

본 선교대학의 치유 선교사 훈련 실기 강의를 담당한 윤재권 박사(보건학 Ph.D.)는 본교 스포츠건강관리학 학장과 현재세계프로 활법도 연맹 총재로 합기도 9단, 활법도 9단, 종합무술 9단 소지자인 Grand Master 입니다. 이 분은 종합무술의 최고단자로 무술치료(Martial Therapy)의 새지평을 연 세계적인 치료 권위자로 인체의 전신치료를 다룬 책 '무술의학'을 최초로 펴낸 저자이기도 합니다. 한글판에 이어 영문판과 스페인어판이 곧 출간될 예정이어서 라틴 아메리카를 비롯하여 전 세계로 보급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앙심과 선교의 열정을 가슴에 품고 '치유선교사' 양성에 남다른 의욕과 사명을 가진 분이 VIULA와 함께 일하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VIULA 총장 Abraham K. Lee, D.Miss.-

**치유 선교사 학과 학생모집 / 입학안내**

**입학자격:** 다민족 선교사명자, 가족건강을 염려하는 분, 학력제한 없음

**학과구분:** 초급(3개월) / 중급(6개월) / 고급(12개월)

**원서접수:** 2012년 3월 30일부터 4. 30일까지(각과 20명 선착순)

**입학원서:** 본교 학생처 교부 / 홈페이지 [www.viula.org](http://www.viula.org) 다운로드

**강의과목:**

- 신학-실사 선교학, 성경파노라마, 바울신학, 요한계시록, 영성신학, 성경경독, 요한복음, 영어성경 외
- 치유-스포츠건강관리학, 무술치료(Martial Therapy) 실기, 재활치료 실기, 한방치료 실기, 자연요법치료 외
- 언어- 기초 히브리어,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외

\*기능인 선교사 학과는 준비를 마치는대로 오픈할 예정입니다.

- 기능- 비즈니스 선교, 저비용 우물개발, 간소 전력개발, 건축, 미용, 시장선교, 목장/농장(울게기) 농산물제품 개발) 자연농법, 선교지 특산물 개발 외

---

치유선교사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면 VIULA와 세계프로활법도 연맹이 공동으로 발행하는 치유선교사 자격증을 취득 합니다

**Teaching & Mission**  
**Vision International University LA**

760 S. 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www.viula.org](http://www.viula.org) / [visionviula@me.com](mailto:visionviula@me.com)

문의전화: (213) 293-5745 / (213) 610-4989 / (714) 795-9090



# 2012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 가능)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i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 Fax: 562-926-1025 / www.ptsa.edu

**코헨대학교 & 신학대학원**  
*with the wor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310-793-2285 / Fax: 310-793-2297 / www.cohenuiversity.ac

**국제개혁대학교 신학대학원**  
 I-20 발행, 각종 장학금 혜택  
 KAPC 교단 직영 신학교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 Fax: 213-381-0010 / www.iruniv.org

**캘리포니아센트럴대학교**  
*This is the hand stretched out over all nations. (Isaiah 14:26)*

520 S. La Fayette Park Pl. Suite #103 Los Angeles, CA 90057  
 Tel: 213-381-7007 / Fax: 818-435-2441 / www.myccu.us

**미 서부 침례신학교**  
 I-20 발급, 장학금 및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 가능  
 1월과 6월 2주간 집중 강의로 3년 내에 D.Min. 취득 가능  
 GTU, UC Berkeley로 대학원 과정 수강 및 Ph.D. 수학 가능  
 M.A. in Community Leadership는 평신도 지도자 프로그램

760 South 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213-200-2592 / baptistbob@verison.net

**국제장로회연합신학대학**  
 칼빈주의 신학에 근거하고 개혁주의 신앙으로 신학을 정립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통하여 그리스도 일꾼들을 양성

1749 W. Orange Ave. Anaheim, CA 92804  
 Tel: 714-879-7952, 714-393-7952 / hjung3155@gmail.com

**국제비전대학교**  
 정시/수시: (Offline, Online 강의)  
 학위: 학사/석사/박사 (D. Min., D.Miss., Ph. D.)  
 I-20 발행, 각종 장학금 지급

760 S. 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213-293-5745 / 213-610-4989 / www.vision.edu

**캘리포니아 두란노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 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갈릴리신학대학 & 랭귀지스쿨**  
 목회학석사 (M.Div.) 신학석사 (S.T.M.)  
 목회학박사 (D.Min.) 신학박사 (S.T.D.)  
 SEVIS인가 대학, 자체 I-20발행  
 ESL프로그램(음성학적 영어학습방법론을 개발)

1000 Venice Blvd., Los Angeles, CA 90015  
 Tel: 213-746-1004 / Fax: 213-746-5004 / www.gstlcedu.com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풀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 http://korean.fuller.edu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A., CA. 90019  
 Tel: 323-731-9819

**칼빈성서신학대학원**  
 CALVIN BIBLE COLLEGE & SEMINARY

4055 Wilshire Blvd #419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9-8987

**미주개혁신학대학교**  
 SEVIS I-20 FORM 발행  
 신학과/ 선교학과/ 기독교교육학과/ 목회상담학과  
 사회복직학과/ 유아교육학과/ 종교음악학과/ 문예창작학과

2706 Wilshire Blvd. 1st Floor, Los Angeles, CA 90057  
 Tel: 213-736-6500 / Fax: 213-736-6504 / reformeduniv.org

**아메리칸 신학대학 및 대학원**  
 ARPC 미국 총회 목사 안수  
 I-20 발행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323-732-7356 / Fax: 818-773-8868 / www.atsusa.org

**미션신학대학교**  
 하나님 앞에 섰고, 진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명자를 양성합니다. (전액 장학금 지급)

15000 Studebaker Rd. Norwalk, CA 90650  
 Tel: 562-869-7497 / www.mcuniversity.org

**바울성경대학**  
 말씀을 개혁주의 신학안에서 바르고 깊이있게,  
 성경 66권 전체를 공부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누구든지, 언제나, 오실 수 있습니다.

7651 5th St. Buena Park, CA 90621  
 Tel: 562-394-3342 / paulbiblecollege@gmail.com

**윌클리프대학교**  
 Wyclif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는  
 개혁적인 신앙과 바른 성서해석을 가르쳐  
 어두움을 밝히는 지도자, '개혁의 새벽별'  
 존 윌클리프 같은 개혁자를 길러낼 것입니다

14631 Leffingwell Rd. Whitter, CA 90604  
 Tel: 562-777-7078 / www.wyclifuniversity.net

**미주성결대학교**  
 한국성결교회 100년,  
 미주성결교회 30년,  
 미래를 책임지는 미주성결대학교!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 Fax: 323-643-0302 / www.aeu.org

*Solution for Tomorrow*

**LASERVISION WORLD**  
 www.laservisionworld.com

**부활절 특별행사를 위한 무선마이크**

**조명 스테이지 렌탈해 드립니다**

**Customized Solution**

\*컨설팅부터 시스템 설계, 시스템 시공, 감리, 교육 및 정기점검까지  
 One Stop Solution을 제공하는  
 - Total System Integration

\*최신 HD 레코딩 장비를 갖춘 넓고 조용한 Recording Studio를 기반으로 한  
 - Music Production

\*최신 HD 영상 장비를 갖춘  
 - Digital Film/Video Production

\*최신 장비로 무장한 라이브 음향 영상 조명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 Live Production 까지

Laservision World에 오시면 여러분의 필요에 맞는  
 전문 음향, 영상, 조명의 Total Digital Custom Solution을 제공 해드립니다.

Laservision World만이 드리는 다음과 같은 장점

1. 풍부한 방송 System 시공 및 컨설팅 경험이 있습니다.
2. 20년 동안 미주 한인 사회와 함께 자라온 안정된 회사입니다.
3. 음향 / 영상 / 조명에 관한 토탈 디자인 서비스를 통해 경비와 시간을 최소화시켜드립니다.
4. Supervising System을 적용하여 체계적인 System Integration을 진행합니다.
5. 유지관리 비용을 절약하여 드립니다.
6. 에너지 절감 디자인을 최우선시 합니다.
7. 시공 후 Training과 Service 를 통해 고객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합니다.
8. 일에 필요한 License와 책임에 관한 Insurance & Liability를 갖고 있습니다.

Laservision World / Laservision Structure & Engineering Inc. / wwori.com / AVLgear.com  
 1961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7 Tel: 323-730-5050 Fax: 323-383-0257 contact@laservisionworld.com



# 뉴욕 최초로 교회 이름 딴 후러싱제일교회 길 생긴다

### 다양한 지역사회 섬김의 결과



후러싱제일교회와 연결된 149가는 First United Methodist Church Way로 이름이 변경된다.

뉴욕 플라싱 38가와 루즈벨트 에비뉴 사이 149가 선상은 앞으로 후러싱제일교회(담임 장동일 목사)의 영어명칭인 'First United Methodist Church Way'로 사용된다. 뉴욕시의회가 최근 관련 법안(761A)을 최종 승인한데 이어 현재 시교통국은 새 표지판을 제작, 오는 6월 중 현판식을 가질 예정이다.

한인교회의 이름이 명시된 거리명이 탄생된 것은 뉴욕시에서 처음이자 뉴욕주 내에서도 최초다. 통상적으로 미국 내의 거리명은 송고하게 회생한 경찰이나 군인, 소방관 혹은 목숨을 바친 시민의 이름으로 지칭이 되는 것이기에 이번 뉴욕시의 결정은 한인교회와 한인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당초 영어 약자명인 'FUMC Way'를 사용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풀네임 그대로 사용하게 돼 더욱 의미가 깊다.

한인교회 이름의 거리가 탄생된 배경에는 그동안 후러싱제일교회가 지역 커뮤니티를 섬겼던 노력이 있었다. 높은 인구밀도의 도시인 뉴욕에서 특히 한인교회 이름의 거리가 탄생된 것은 그만큼 지역에서도 인정받는 교회가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후러싱제일교회는 매주 토요일마다 거리의 노숙자에게 따뜻한 커피와 빵으로 봉사하는 등의 활동을 꾸준히 해 오고 있으며 특히 세계 각처에 제단이 발생했을 때 대표적으로 온정의 손길이 넘치는 교회로 이름이 알려

져 있다.

9.11테러 당시에도 성금이 일시에 5만 불이 모금됐으며 카트리나 성금도 4만 불을 모금했다. 이외에도 쓰나미 혹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성금을 모을 때 항상 4만~6만 불에 이르는 거액을 모았다. 200년 역사를 지닌 미국 내 가장 오래된 감리교회이자 단일교회로서는 제일 큰 규모의 교회인 것도 주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 장동일 목사 부임 이후 곧바로 이어진 쾌거

후러싱제일교회 거리 조성은 장동일 목사가 담임으로 부임한 지난해 7월 이후 추진돼 온 사안이다. 한인사회와 한인교회들의 귀감이 되는 사례가 될 수 있기에 장동일 목사와 성도들은 이를 두고 오랫동안 마음으로 기도해 왔다.

이런 기도를 합입은 보이지 않은 수고의 손길도 있었다. 플러싱정치연대 대표 테렌스박 권사는 한인교회 이름의 거리명이 탄생될 수 있도록 지역 커뮤니티 내에서 또 시의회 관계자들에게 후러싱제일교회의 지역사회를 위한 긍정적인 역할을 알리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테렌스박 권사는 "후러싱제일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고 봉사했기 때문에 그것을 대외명분으로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며 "이 모든 일이 장동일 목사를 비롯해 모든 교인들의 열화와 같은 기도의 응답이라고 믿어 확신한다"고 말했다.

6월에 있을 현판식은 지역 커뮤니티의 주요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후러싱제일교회 관계자들 외에도 지역 유지와 상·하원의원, 시의원, 주민단체 대표, 한인단체 대표 및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대원 기자

### ◆평신도가 한국교회를 바꾼다 (上)

# 평신도가 깨어난다? 이미 깨어났다!

평신도위원회 793개. 후보 48페이지. 12년 연속 세례자 수 60명... 서울 초대 행교회가 아니다. 전라남도 완도의 성광교회(담임 정우경 목사) '스펙(spec)'이다. 주일예배 참석교인 약 1천명의 이 교회엔 남다른 숫자들이 많다. '예배 안내 기획위원회'부터 '실질인 사명위원회'에 이르기까지 평신도 사역을 세분화한 위원회가 793개에 이른다. 이들 위원회의 사역 내역이 매주 48페이지의 주보를 통해 공개된다. 차라리 한 권의 책이라고 하는 게 맞겠다. '평신도들의 교회'인 만큼 새신자 정착률이 높아서 지난 12년 동안 매년 60명에게 세례를 줬다. 1년 세례자 수 50명만 되도 '기적'이라는 요즘에, 그것도 '시골 of 시골'인 완도에서.



교회 안에서 평신도의 역할과 사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이 교회 담임 정우경 목사는 "신학생 시절 성경을 배우면서 사도들 뿐 아니라 그들에게 신앙을 전수받은 소위 평신도들 역시 복음전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음을 알았다"며 "지금의 교회에도 평신도들로 구성된 리더그룹이 필요하다. 이제 목사 혼자, 혹은 당회원 몇 명이 교회를 움직이는 시대는 지났다"고 말했다.

바야흐로 '평신도'의 시대다. 오늘날 평신도들은 더 이상 '의미없는 다수'가 아니다. 선교, 봉사 등 교회의 대사회적 사역 뿐만 아니라 재정과 인사를 비롯한 교회 내부 일에도 깊숙이 관여한다. 특히 목회자 전문화, 다양화 되면서 평신도들의 역할은 더욱 커졌다. 그들은 목사의 보살핌을 받는 '어린양'이기도 하지 만 동시에 '민주주의' 기독교의 주역이기도 하다.

최근 몇몇 대형교회들이 리더십을 교체하거나 내부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평신도들은 더욱 부각됐다. 이들은 공동의 회나 별도의 집회, 온라인 등 저마다의 소통 방식을 통해 교회 결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 그러면서 담임목사 등 리더십

을 바꾸는가 하면 당회 결정의 철회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서울의 한 대형교회는 얼마 전 '공동요청문'으로 인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공동요청문은 다름 아닌 이 교회 평신도들이 '성추행'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킨 전담임목사가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 사임했는지를 묻는 것이었다. 간사, 신혼부부, 집사 등 평신도 약 60명은 자신들의 실명을 그대로 밝히며 '당회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 같은 공동요청이 있기 전까지 겉으로 보기에 이 교회는 내부적으로 '의견의 일치'를 본 듯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고 많은 수의 평신도들이 당회의 결정에 의문을 품고 있었던 것이 이번 일을 계기로 드러났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의문을 교회 리더들에게 직접적으로 표출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당회는 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내부 조율을 거쳐 곧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평신도들이 교회 갈등에 개입, 변화를 이끌어 낸 사례들도 있다. 비록 그 과정에서 미숙한 모습들이 자주 노출됐지만, 특히 재정과 관련해 한국교회가 전근대적 악습들을 버리고 진일보하는 데 하나의

이정표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이밖에 리더십 교체기에 있는 한 교회 역시 교인들이 청빙에 높은 관심을 나타내는 것은 물론, 스스로 의견을 개진하고 당회와의 소통에도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서 예로 든 완도 성광교회 정우경 목사는 "교회를 비롯해 어떤 단체든 리더 몇 사람의 능력만으로 움직일 수 없다. 보다 많은 이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며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권위주의적 영향으로 평신도들의 참여율이 높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바뀌어야 하고 또 바뀌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평신도 중심 교회'를 모토로 명동에 교회를 개척한 '교회다움' 민길 목사는 "교회는 양을 먹이는 일과 세상을 섬기는 일, 이렇게 두 가지가 기본 사역"이라며 "목양엔 목사와 장로들의 몫이 크고 지역사회와의 소통에선 평신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목사와 장로들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지나치게 성장 중심이었기에 세상과의 소통에 실패했고, 그러면서 평신도들을 간과했다. 그러나 이제 평신도들이 전면에 나선 때"라고 말했다. <계속> 김진영 기자

# 당뇨, 고혈압, 고지혈, 부인병 및 힘든 질병에서 빠르게 증상 개선시키는 청 한의원

## 대단히 놀랍고도 빠른 효능의 특수침술, 특수진맥

**이번주 강의: 당뇨, 고혈압의 합병증에서 빠르게 대처해야되고 그렇지 않으면 참으로 심각하고도 위험한 상태에 이를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 초기에 약을 복용하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약에만 의존하다 눈이 안보이거나 신장투석 다리절단과사, 심장병, 뇌경색 중풍 치매등으로 고생하다 무척 힘들게 되는데 어느정도 약을 줄이거나 벗어나야합니다. 왜냐하면 약은 빠른증상개선으로는 좋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작은 혈관이 막히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몸의 중요장기인 뇌, 눈, 심장, 신장 및 손, 발등 중요한 부분의 파손환이 인종아져 무섭게 망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일례로 나이가 40살 정도인데 당뇨가 생긴지 2년정도인데도 눈이 안보여서 본원에서 치료 3개월후 눈이 어느정도 보이게 됐고 당뇨수치가 어느정도 잡혀서 안도의 숨을 쉬지만 당뇨 합병증을 생각보다 무척 힘들고 그 고통은 상상하기 힘들니다.

본원에서는 자연의 요법으로 약에서 어느정도 벗어나서 수치가 어느정도 정상이 되도록 도와드립니다.

당뇨, 고혈압은 평생토록 관리 조절을 잘해야합니다. 재발할수있기 때문에 완치는 안되지만 약에서 어느정도 벗어나야 그리고 줄여서 합병증에서 벗어나야합니다. 본 한의원에서는 특수침술과 특수침술을 통해서 오래된 통증을 믿기힘들 정도로 빠르게 수 분 정도에도 통증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됩니다. 아울러 약해진 장기의 균형을 도와주어 합병증 및 통증에서 벗어나게끔 놀라운 효능을 나타내게 도와드립니다. 올바른 가르침, 준비된 생활로 건강도 올바르게 서 있어야합니다.

**청 한의원의 상상하기도 현실의 세계에서 믿기 어려운 빠른효과의 특수침술은 과연 무엇인가..**

1.예) 70대 바라보는 LA인근에 사는 김 선생은 허리통증으로 너무나 아파서 오랫동안 고생하면서 본원에 와서 침을 맞은지 불과 2~3분도 채 안되서 그 즉시 그 괴로운 통증이 사라지니 정말 믿을수가 없다. 신기하다, 정말로 이해하기 힘들다. 그래서 친구에게 그 상황을 얘기한즉 아무도 믿기 어렵다 말한즉 3주가 지난 이후에도 통증이 없으니 너무나 감사하고 신기해하는 모습이었다.

2.예) 50대 남성으로 오렌지카운티에 사는 강 선생은 오십견으로 팔을 들거나 움직일때 너무나 고통스러워했고 한 6개월 정도 고생으로 여러 별별치료를 다 했으나 계속 아파서 본원에 와서 치료후 5분도 안되서 그 통증이 사라지고 자유자재로 그 즉시 움직이니 현실의 세계에서 어떻게 이런일이 있을수있나 믿기지않아했고 정말 꿈을 꾸는 것 같다고 말을 하였습니니다.

3.예) 70대의 할머니 엉덩이부터 땀기고 발끝까지 아파서 좌골신경통 및 알수없는 통증으로 2년이상 꾸준히 치료를 받아오다 정말 남들이 2~3분 정도후에 통증이 사라진다는 말을 듣고 그냥 방문 그런데 5분도 안되서 그 오래된 통증이 사라지니 이것은 상상으로 정말 이해가 안 간다고 감탄하시며 뒤돌아 가면서 감사해하는 모습이었다.

4.예) 젊은 학생이 6개월정도전에 다리를 다쳐서 심하게 아파서 붕대를 감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온갖치료를 했으나 큰 진전이 없어 통증을 호소하는바 침을 놓은지 5분도 안되서 그 통증이 사라지고 자유자재로 무릎을 움직이니 어떻게 이런일이 이 세상에 있다니 말하면서 Amazing이란 말을 계속 연거푸 말하고 있었다.

5.예) 60대 후반의 여성이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 배부위의 통증으로 무슨 큰병이 아닌가 걱정하면서 내원한바 침 시술후 3분도 안되서 그 통증이 사라지고 없어졌으니 남편도 지켜보면서 정말 눈으로 보면서도 믿기가 힘들고 상상으로 이해가 안간다고 너무나 감사해했습니니다.

6.예) 80대의 할머니가 당뇨, 고혈압, 고지혈로 여러 알약을 복용하던 중 내원한바 본원에서 3개월 정도 치료후 모든 알약을 다 끊고도 수치가 정상이 되니 가족도 놀라와하고 병원에서 믿기 힘들다고 의아해 했다고 말하면서 그저 주위사람들이 놀랍고도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로 놀라운 일이라고 말하였다고 했습니다.

7.예) 40대 초반의 젊은 청년이 당뇨를 앓은지 2년정도인데도 눈이 안보이고 Insulin 70Unit맞으면서도 400~500정도 당수치가 나오고 몸은 너무나 말라서 보기가 힘들정도이고 발바닥은 가죽처럼 찢겨져 있었고 살을 포기한 모습으로 내원한바 본원에서 3개월 남짓 치료후 눈이 어렴풋이 보이면서 Insulin 40Unit 맞으면서도 당이 100정도 내려오고 몸에 살이 붙으면서 발바닥도 보드라워져서 이 기쁨은 천하를 바꾸어도 누릴수 없는 행복이라고 감사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특별 절호의 기회!**  
놀라운 당뇨 신선단 2병 사면 2병 FREE!  
**당뇨병에 희소식!!**



**왜 당뇨신선단이 좋은가?**  
더 자세한 사항은 [www.shinsundan.com](http://www.shinsundan.com)을 참조  
24시간 주문전화 714.636.1412

**Coupon**  
당뇨, 고혈압, 고지혈, 복부비만 프로그램  
**50% off** 3/31/12까지

# 하나님의 일식



김세환 목사  
LA연합감리교회

바라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열 두 해를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절망을 딛고 주님께 나아 갑니다. 지천을 분간할 수 없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소경 바디 메오가 주님을 찾아 부르짖습니다. 귀신들린 딸 아이 때문에 수로보노게 여인이 험한 수욕을 참아냅니다. 중풍에 걸린 친구 때문에 친구들이 지붕을 뜯습니다. 그리고 뽕나무를 거어 올라야 할 만큼 철저한 공허와 외로움에 시달렸던 삭계오가 주님을 만나 새 인생을 얻습니다. 그들은 모두 어두운 인생의 일식을 극복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됩니다.

1900년 초 플로렌스 서면은 사랑하는 남편을 따라 한국에 의료 선교를 떠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이름 모를 병에 걸려 시달리다가 한국에서의 의료활동을 접고 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듬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태양같은 남편을 잃고 두 아들과 험난한 인생을 헤쳐 나아가야 했을 서면 여사의 인생역경을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믿음의 등불을 들고 자신 앞에 펼쳐진 절망의 일식을 헤쳐 나아간 여성입니다.

그녀는 남편의 유지를 받들어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한국인 유학생 신흥우를 돕고, 기도와 헌신으로 끊임없이 한국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LA한인연합감리교회를 낳는 산파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벌써 108주년이 된 우리 교회는 100년 전 우리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 드린 그녀의 기도와 믿음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믿음으로 신앙의 일식을 극복하면 좋겠습니다.

(태양-달-지구)가 일직선 상에 놓이게 되면 달이 태양을 가려서 지구에서는 태양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을 일식(Eclipse)이라고 부릅니다. 순식간에 어둠이 온 천지를 뒤덮습니다. 멸절할 태양이 달에게 잡혀 먹히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킵니다. 과학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천재지변이 일어날 불길한 징조라고 생각했습니다. 생명을 공급하는 태양이 사라졌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태양은 비록 보이지 않더라도 여전히 제 자리에 있습니다. 단지, 달의 기운이 강해서 태양이 보이지 않는 것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문제-나>가 일직선 상에 놓이게 되면, 문제가 하나님을 가려서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소위 <하나님의 일식>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뿐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 큰 문제에 눌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숨어 계시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문제만 골몰하는 바람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뛰어 넘어 하나님을

## 기독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편집국장 : 토마스맹  
지사장 : LA,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크랜트,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팩스 : (718) 228 - 9506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A, CA 90005

# 매일 오늘처럼만



현순호 목사  
에버그린한인교회

봄같은 사람 찾기보다  
스스로 봄같은 사람이  
되면 어떨까?

나는 바람의 도시라는 시카고에서 오래 살았다. 긴 겨울 자동차를 덮을만큼 많은 눈이 시베리아 강풍을 타고 사정없이 몰아치면 도시는 얼어 붙는다. 길이 얼음판이 되어서 넘어져 다치거나 병원에 실려가는 일은 흔히 있는 일이다. 재수 좋게 따뜻한 날이 오면 "매일 오늘만 같아라"하며 사람들은 만세를 불렀다.

세월이 흘러 지금은 미국의 북가주에 산다. 눈이라고는 볼 수 없고 강풍도 모르고 매일 온화하고 따뜻한 봄날이 계속되어 앞뜰과 뒷뜰에는 일년 내내 꽃이 만발한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좋은 자연 환경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이 시간이 가면서 점점 미약해지다 못해 이제는 당연하게 여겨지고 오히려 지진이 나지나 않을까 걱정이 되는 것이다.

사람들이 봄을 좋아하는 이유는 너무 덥거나 춥지 않고 더욱

만물이 소생하고 생동력이 차고 넘치기 때문이 아닐까?

사실 사람들은 봄날만 좋아 하는 것이 아니고 봄같은 사람을 좋아한다. 만나기만 해도 좋다. 환하게 언제나 웃는 그 얼굴을 보기만 해도 세상에서 당하는 그 많은 상처들이 치유를 받는다. 그런 분들은 섬섬한 일을 당해도 너그럽게 받아 넘기고 어떤 이익이 생기면 먼저 주위 사람에게 양보하고 반대로 어려움이 있으면 앞장 서서 해결하고 남에게 무엇인가 도움을 주려고 노력한다.

그런 분에게 나 자신의 어려움을 털어놓고 싶겠 울고 싶고 때로는 어린 아이처럼 자랑도 늘어 놓고 그 분의 칭찬도 받으며 새로운 용기를 얻고 싶다. 그런 사람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물론 교회나 수도원, 아니면 학교에서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실망하고 돌아설 때가 더 많다. 차라리 내가 찾고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서 찾는 것이 더 현명한 일이다. 즉 내가 원하는 봄같은 사람을 나 자신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성숙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남들에게 무엇인가 도움을 주려고 노력한다는 점이다.

어느 따뜻한 봄날 창가에 앉아서 음악을 들으며 책을 읽다가 옆을 보았다. 고양이는 소파에서 눈을 떴다 감았다 하면서 좋고 그 밑에는 강아지가 네 다리를 쭉 펴고 코를 골며 잔다. 나도 낮잠을 자고 싶다. 그러나 별책 일이었다. 한 노인을 만나기 위해서다. 별로 하는 일 없고 찾아오는 이 또는 갈 곳이 없는 고독한 그를 만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며 친구가 되어 잠시라도 따뜻한 인정을 나누고 싶어서다.

하늘이 주신 온화한 봄날을 감사하며 나 자신이 봄같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멋진 삶이다.

# 물질에 자유인이 되어야 합니다



진유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오늘날 물질이 중요한 이면생활, 또 물질이 하나님 자리까지 가게 될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처럼 물질에서 자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기에서의 자유란 유행, 풍조, 허영, 헛된 체면 등으로부터의 해방과 자유를 의미합니다. 현대인들이 살고 있는 집안이나 혼수품 등을 들여다 보면, 계층에 따라 가구며 집기 등이 너무나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유행과 사치를 따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남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받

지 않기 위하여, 인정받기 위하여 똑같은 것이나 좀 더 나은 것들을 구입하는 어려움과 낭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로부터의 자유란 아무 것도 구입하지 않거나 소유하지 않고 그저 알몸으로 빈 손, 빈 주머니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물건을 살 수도 있고 지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행이나 체면, 허영이나 풍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하고 소유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은 죄악이지만, 물질을 아름답게 사용하는 것은 그 물질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십시오. 요12:6에 예수님의 제자 중 가롯 유다는 돈을 관리하는 회계였음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도 돈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바람과 파도도 잠잠케 하시는 주님에게도 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 중에 예수님께 돈을 헌금하는 자들이 있었음을 뜻합

니다. 예수님께도 회계를 두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돈이 많았습니다. 그 돈으로 옷도 사 입으셨을 것이고, 먹을 것도 사다 잡수셨을 것이고, 여러 경비도 지출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불필요한 것의 유혹에 빠지지 않았기에, 유행과 사치, 허영과 체면 등으로부터 자유한 분이셨습니다. 철저히 우리들의 분이 되는 자유인의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물질에 자유한 그리스도인은 물질을 통해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필요한 것을 구입하고 남는 여유분을 자기를 위하여 쌓아두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단지 구두쇠요 인색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물질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물질에 자유한 그리스도인은 물질을 자기만을 위해 쓰고 저축하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봉사의 수단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대기업을 소유한 기업가라 할지라도 자신의 기업을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사회를 위한 봉사의 도구로 활용한다면 그는 깨끗한 부자유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것

입니다.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권력을 진정으로 백성을 섬기기 위한 봉사의 도구로 사용한다면, 그 나라에서 가장 웅장한 대통령궁에 살고 그 나라에서 가장 큰 차를 타고 다녔다 그는 청빈한 사람이며 물질에 대해 자유인인 것입니다.

이렇게 물질로 봉사하는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신앙고백이 있는 삶이어야 합니다. 좀 더 많은 사람에게 봉사하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부당하게 물질을 추구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바르게 쓰는 것보다 바르게 얻는 것이 더 중요한, 바르게 얻지 못한 것은 결코 선한 봉사의 도구로 이용될 수가 없는 까닭입니다. 그렇기에 물질을 구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하여 사용하는 데 이르기까지 물질과 관련된 삶의 전 과정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고백이 될 때에만 올바른 자유인이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소유하고 있든, 공수래 공수거는 하나님의 법칙인 것을 잊지 마시고 물질로 봉사의 삶, 물질의 신앙고백이 있는 진정한 자유인의 삶을 살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살롱!



# 여드름, 성공률 99%

효과 없을시 100% 환불

몸속의 원인을 다스리고  
피부의 내면과 외면을  
동시에 치료합니다.

**첫상담 무료!**

Tel: 213.380.0853

3030 W. Olympic Blvd., Suite 202-203(삼호관광 몰 2층) LA, CA 90006

## 경산 한의과병원

KYUNG SAN ACUPUNCTURE CLINIC

원장 류재규

경산 한의과 대학 교수

# <제12회> 유동근 목사의 마태복음 강해



유동근 목사  
한국 은누리선교회

4장 12-14절,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블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주 예수님은 3장 마지막 부분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그리고 4장에 와서 사십일 간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주님은 세 가지 시험에서 완전하게 승리를 하셨다. 그런 다음에 12절에서 요한이 잡히셨다는 것을 들었다.

요한은 주 예수님의 선주자로서 그분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다 걸었다. 그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그

리스도를 소개하고 또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그는 회개하라고 외쳤으며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요한은 옥에 갇히게 되었다.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종인지 하나님께 정하신 발걸음을 다 걸으면 이제 마쳐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요한의 세례와 주 예수님의 세례가 겹쳐져 동시에 두 종류의 세례가 행해질 때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요한을 따르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는데,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을 위해서 시키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모든 그리스도의 종들은 그분을 위해서 일해야지 조금이라도 주님 자신과 상충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요한은 주 예수님이 일어나서 사역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면에서 사라져야 한다. 그런데 주님이 일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계시에 그도 여전히 한쪽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다. 그럴 때 결국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되고 목베임을 당하게 되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쩌든 요한은 할 일을 다 했다는 것이다. 그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다 했으면 된 것이다. 사도 바

울은 자기가 달려 갈 길을 다 마쳤다고 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전기를 읽어 보면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일생의 마지막에 가서 자기가 할 일을 다 했다고 느낀 것을 볼 수 있다. 아직 할 일이 남아 있는데 데려감을 당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다.

하야간 요한의 사역은 다 마쳐졌고 요한이 잡힌 것을 들으셨을 때 주 예수님은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갈릴리가 어디인가? 갈릴리 땅은 이방 땅이라 불리었다. 왜냐하면 갈릴리 땅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거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렀다.

이런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멸시하는 말이다. 오늘날 미국에 가면 어떤 지역에는 멕시코인들이 살고, 어떤 지역에는 베트남 사람들이 살고, 어떤 지역에는 흑인들이 사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 미국인들은 백인들만 사는 곳을 아주 선호하고 흑인들이 사는 할렘가라든가 하는 곳을 아주 멸시한다. 갈릴리는 그러한 곳이다. 주님은 요한이 잡힌 뒤에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셨다고 했다. 갈릴리 나사렛, 주님은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다.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빌립이 말

한 것처럼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곳이다. 사람들의 관념에 매우 천박한 도시이다. 갈릴리 사람들은 그 말소리도 강한 악센트를 갖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이 잡히셨을 때 주님을 세 번 부인했는데 그 악센트 때문에 걸릴 뻔했다. 한 비자가 베드로에게 '네 말이 네가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했다. 그런데 주님은 먼저 이 갈릴리 나사렛에 계시다가 거기를 떠나 스블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라고 하셨는데, 주님은 요한이 잡히셨다는 말을 들은 후 이젠 사역을 시작하셔야 한다고 느끼신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인가? 이는 ‘물러가셨다’라는 표현에서처럼 그분은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곧 처형할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할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아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신 것이다. 물러가셨다는 것은 헬라어로 ‘아나코레인’으로 위험에 직면했을 때 물러가는 것으로 사용된 단어이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은 사역의 시작부터 예루살렘과 같이 반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하시지 않고, 할 수 없이 받을 수 있는 곳을 택하여 사역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분은 당시 멸시받는 동네인 나사렛으로 가셨지만 또 금방 그곳을 떠나셔야 했다. 왜 주님

은 나사렛을 떠나셔야만 했는가? 이 일은 여기서는 그 이유를 알 길이 없고 누가복음을 읽어보아야 한다. 이 사건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주님이 자라나신 곳은 나사렛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렀다. 나사렛 예수, 나사렛이라는 이름은 천박한 땅, 야만적이고 아주 촌스러운 지명으로 통한다. 주 예수님은 그 나사렛에서 자라셨다.

그런데 그곳에서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는데 그때 사람들이 이 사자의 책을 펴서 드리니까 한 구절을 주님이 읽으셨다. 이것이 그분의 사역 초기에 하신 일이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눅 4:18-19).

그러면서 주님은 오늘날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고 하셨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그 입에서 나오는 은혜의 말을 기이히 여기면서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고 멸시

하는 말들을 했다. ‘의원이려면 너부터 고쳐라.’ 이것은 다 멸시하는 말이다.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에서도 행하라.’ 이런 말들도 다 멸시하는 말이다. 그러자 주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일이었다고 하셨다.

결국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동네 밖 남퍼리지로 끌고 가서 밀쳐 내려 하는 사건이 바로 그분의 고향에서 일어난 것이다. 그때 주 예수님은 그 무리 가운데로 지나서 가셨다. 아무도 주 예수님의 그런 위업을 범할 수는 없었다. 동네 사람들은 그분을 끌고 남퍼리지까지 가서 밀쳐 내려고 했지만 주 예수님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저희 가운데로 그냥 지나서 가신 것이다. 예수님은 그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철저히 배척을 당하셨다. 그렇게 멸시하는 곳에서는 주님이 일하실 수가 없다. 성경은 그들을 믿지 않는 것을 주님이 이상히 여기셨다고 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많은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셨다고 했다.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곳에서는 더 이상 증거할 수 없다. 그래서 주님은 나사렛을 떠나신 것이다.

그리고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이 영예스럽게도 주님의 사역의 첫 번째 지경으로 선택이 된 것이다.

→ 다음 호에 계속

## 이민아 목사에게 빛진 우리들



임영민 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교회

이처럼 교수의 파남인 이민아 목사가 지병으로 소천하셨다는 소식이다.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에 딱히 슬퍼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간적인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은 금할 수 없다. 이민아 목사는 오래 전부

터 오렌지카운티에 살았고 본인의 간증에 의하면 여러가지 곤고한 순간에 이 곳의 한 교회에서 주님을 만났다. 그리고 검사에서 변호사로 직업을 바꾸어 주로 청소년들을 변호하는 일들을 했다. 그 무렵부터 또 서서히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면서 지역사회와 교회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한 것으로 기억한다. 처음에는 이 지역에서 있었던 이런저런 집회에서 주로 청소년 문제에 대해 부모님들의 인식을 깨우치는 사역들을 했다. 그러는 가운데 개인적

인 어려움과 고난들에 계속되어서 사랑하는 아들을 갑자기 잃는 슬픔을 당하였고 그에 더해 본인 자신이 오랜 기간 동안 암과 투병하기도 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집회를 했던 것이 한 5,6년 전 즈음으로 기억되는데 그 전 해 갑자기 아들을 잃

는 슬픔을 당했고 그 큰 슬픔을 믿음으로 이기면서 아들에 대한 애慕는 사랑을 오히려 섬김으로 승화시키고자 하는 시기였었다.

이민아 목사는 그 당시에는 어느 미국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아들을 잃은 슬픔 때문인지 얼굴과 몸이 너무 야위어 있는 모습이 안타깝게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 때 그녀는 영적으로 한층 깊어져서 기도와 찬양에 깊이 젖어 있었고 말씀과 간증은 듣는 사람들을 깊이 감화시키는 힘이 있었다. 내 기억으로는 우리 교회에서 여자 강사 그것도 당시로서는 집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한 것은 전례없는 일 이었고 그래서 다들 약간의 염려도 없이 있었는데 당시 집사였던 이민아 목사의 집회는 그런 우려를 깨끗이 씻어주며 큰 감동과 은

혜를 남겼다. 이후에 이런 저런 집회를 통해 우리 교회는 적지 않은 성령의 기름부으심과 은혜를 체험하였는데 나로서는 우리 교회의 집회 중 그 집회를 통해 처음으로 강력한 성령의 기름부음을 체험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특별한 기적이니 자유 같은 것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집회 기간 동안 내내 성령의 기름부음이 마치 교회 안에 이슬비가 내리는 듯 축축하게 적시는 듯한 느낌이었다.

이민아 목사에게는 그 후에도 개인적인 아픔과 고난이 계속되었던 것 같다. 그리고 그런 딸의 고난을 통해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인으로 손꼽히는 아버지 이영교 교수가 마침내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귀한 역사도 있었다. 그 때 이영교 교수의 딸을 위한 간절

한 기도가 마스크를 통해 알려져서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그 후 이영교 교수는 크고 작은 교회 행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변증하는 학자로 거듭났고 요즘도 크리스천 방송 같은 곳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민아 목사가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된 것은 아버지의 후광 덕분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딸이 그 고난을 통해 아버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게 된 것이다.

그러다 언제부터인가 그녀가 목사가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주로 한국에서의 활동 소식이 간간히 전해졌다. 아마도 딸을 염려한 부모가 딸을 곁에 두고 도움을 주려는 뜻이 아니었나 싶었다. 그러던 중 뜻밖에도 소천의 소식을 접하게 되니 놀랍고 안타깝지 않을 수 없

었다. 인간적으로는 명문가의 사람 받는 딸로 태어났지만 그 누구보다도 우여곡절 많은 인생을 살아간 한 여인에 대한 연민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고난과 시련이 아니었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민아라는 한 여인을 알 수도 없었을 것이고 그녀를 통해 역사하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그녀를 통해 부으셨던 성령의 기름부음을 전혀 누리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녀의 고난이 본인에게는 너무나 힘든 것이였겠지만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된 부분이 적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민아 목사에게 적잖은 사랑의 빛을 진 사람들이기도 하다. 또 꼭 하나님께 위로와 평강이 이민아 목사의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린다.

→ 다음 호에 계속

말씀 안에 신학이 있다

## 웨이스 기독교대학교 · 신학대학원

Faith Theological Seminary & Christian College(Tampa, FL)

**SEVIS**  
**I-20**  
**상당**

---

**2012년 봄·가을 학기 신입 편입생 모집**

본교의 특전 및 소개 **전세계와 50개주가 인정하는 정규학위 수여(Academic Degree)**

- 본교는 신구약 성경의 정확무오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성경중심의 보수주의 개혁신학을 교육하는 대학으로 유명 정규학위(이카데믹 디그리)를 수여하는 신학대학원입니다.
- 본교는 미국남부 플로리다주 주정부 교육청에 등록(NO 246083)된 신학대학원입니다.

**정규 학위 인준 기관**

**특전:**

- \* ACSI (Association of Christian Schools International)
- \* AMFED (American Federation Christian College Schools)
- \* CIE (Commission of Independent Education)
- \* SAABC (Southern Association of Bible College)의 정회원에게 가입되어 미국어디서나 학점을 인정받고타신학교와 학점교류도 가능합니다.
- \* 장학금 혜택은 전학생 (50%)

- 편입학생 및 신입생 접수(타신학교 학점인정) 수시접수
- 졸업후 미국교단과 한국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을수 있음
- 명문 유명학교와 학점교류
6. **통신강의 (이카데믹 학위취득)**

- ① Dallas Theological Seminary
- ② Lee University
- ③ Oral Roberts University

- ② Indian University
- ④ Liberty University
- ⑥ Regent University

**학생모집(학위과정, 학점, 자격, 논문)**

On-campus		Intensive and Distance Special Education Program		
학위	학과	학점	자격	특채
대학부 Bachelor 50% 장학금지급	학사-신학(B, TH)	128	고졸 이상자	Faith Theological Seminary & California 학위
	교육학(B,C,E)	128		
	목회학(B,P,M)	128		
대학원 Master 50% 장학금지급	목회학석사(M.P.M)	96	신학대학 및 일반대학 졸업자	
	신학석사(M.Div)	96		
	교육학석사(M.C.E)	96		
박사과정 Doctor Degree 50% 장학금지급	목회학박사(D.Min)	32	석사학위이상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신학박사(Th.D)	64		
	교육학박사(D.C.E)	64		
	상담학박사(D.C.C)	64		
	신학 Ph.D 상담학 Ph. D.	64 64		신학박사, 상담학박사 졸업자

---

**제 1 캠퍼스: 3251 W. 6th St., #101, L.A, CA 90020**  
수시접수

**제 2 캠퍼스: 6882 Selma Ave., Hollywood, CA 90028**  
**(213)503-5330**  
수시접수

#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Classified AD



중고차 황제 김기형

## 웨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213-453-5900 / 714-743-1000  
123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5

## 홈 페이지 제작

제작비용 걱정, 이제 그만!  
저렴하고 빠르게 제작

\$499

풍부한 제작경험을 토대로 장성것 제작해드립니다.

제작문의 213.364.2124

##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 방수·루핑 LIC # 531243

지붕, 옥실, 벽, 발코니, 지하실, 창틀방수  
크랙 물 새는 곳, 특수 방수공법  
완벽 시공, 3년 개런티

213-327-9929

##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BF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지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인디안알로에 베라**

다년생 초본만을 선별하여 특정부위에 유효성을  
채취함으로써 최고의 효과와 효능을 볼 수 있습니다.

99.6% 위장(위궤양), 방광, 신장, 전립선,  
변비증, 피부상처, 화상 등에 치료와 예방

TEL.(213)736-6625  
www.indianaloevera.com

**사과 판매다**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Select color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리지용 Bottless Shelving

99센트 마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달라임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

창고용 Pallet Rack

중고 선반 대량 보유

마켓용 Gondolas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가주 L.A. 커튼**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썬 스크린 롤러 Shade"

거리불문 무료견적

HunterDouglas Sunland Shutters 공인딜러

Tel. 213.447.1101 43406 Standliff Ave. Lancaster, CA 93535

**금 샅니다** 최고가 현금매입

10K, 14K, 18K, 금, 은수저 등 (무료출장매입)

LA: 213-407-8759 / Other: 714-293-9701

**황씨 냉동. 에어컨. 히팅**

신속, 정확, 저렴 전지역 가능, 24시간 대기

상업용: 마켓 식당 리프, 냉동냉장, 웨어하우스 교회 센츨럴 A/C, Walk-in 냉장, 냉동설치 및 수리, Ice Cream 머신수리  
가정용: LG벽걸이 A/C설치 수리, 하우스 아파트 센츨럴 A/C 냉장고, 설치 및 수리

(213)220-7131 (626)807-8799

귀국 자동차운송 **업계최저 \$950**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 시내· 타주이사· 차량운송

한국인 직원이 한국식 포장이사를 해드립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23-582-2424

8122 Maie Ave. #1, Los Angeles, CA 90001 www.easy2424.com

**3개월 단기 과정으로 유아교사 자격취득**

유아교사, 원장 Certificate Program

- 3개월 집중 과정으로 유아교육 현장 실습을 포함하는 전문 교육을 받게 됩니다.
- 졸업 후 Preschool, Day Care Center, Family Child Care에 취업 및 유아 교육기관 설립을 안내해 드립니다.

TEL. 714-932-9728 12666 Brookhurst St, Garden Grove, CA 92840 스탠튼 대학교

'아토피, 비염, 천식' 한방으로 해결합니다.

**편강환**

▶ 30여개국 해외진출  
▶ 7만명 이상의 환자 진료

스탠튼대학 (부속) 편강환방병원  
9618 Garden Grove Blvd., #221 Garden Grove, CA 92844  
Tel. 714-539-6562 Fax. 714-539-9077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 트랜스미션 타이밍벨트
- 브레이크 튜업정비

10% 할인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가나 JJ 플러밍** 땀 들어요!

- 메인 하수관 300피트 OK(초장력 머신 보유)
- 나무 뿌리로 자주 막히는 하수관(근본적인 해결)
- 싱크대, 욕조, 반기 등
- 노후된 파이프를 동 파이프로 교체
- 새거나 터진 파이프 신속하게 해결
- 각종 Faucets, 디스포즈, 보일러, Toilet(수리 및 교체)

많은 고객께서 다시 찾는 플러밍입니다.

Tel. 213-220-4123

**dish NETWORK AUTHORIZED RETAILER**

\$29.99 /월, 12개월간  
120개 이상의 미국채널  
무료 HD채널 (60개) 이상  
무료 24시간 KBS

디시 네트워크 공인딜러 **KNA**

www.knamedia.com  
1.888.894.8949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과 외 양,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편라이즈 페인팅 SUNRISE PAINTING**

- 페인트, 루핑, 플러밍, 목수일
- IN & OUT SIDE
- 상업, 주택, 아파트 23년 경력

(모든일 직접 정직하게 저렴하게 해드립니다.)

Paul Seo, TEL : 213-884-7055 / 213-858-8484  
418 S. Newhampshire Ave. LA, CA 90020

sasafterschool.blogspot.com

민고 맡기세요. 아이들의 성적이 달라집니다 K~6

Math English ESL Writing Bookclub

**APPLE TREE ACADEMY**

Pick up, 건강한 식안과 함께 학교공부 준비를 100% 도와 드립니다.

213.507.5045

**식재료 도·소매**

- 주일 예찬 식재료 (양념, 젓갈, 김, 김치 각종 장류, 밑반찬)
- 교회 바자회 물품 (음료, 스낵, 견과류, 각종 공산품 등)
- 참숯 (바베큐용)
- 각종 Tea (커피, 동글레, 홍차, 녹차 등)

818-306-7652

**이중창문교체전문**

특별세일 7월세일

10개 기본창문(햇빛차단 Low-E)  
\$2,699 + Tax

→ 창문 10개이상 Order시 블라인드 가격 10% 할인

**치과 기공 기술 학생모집**

(면허 소지한 원장이 직접 지도합니다)

2월 24일(금) 시험대비 CDT 치과기공사 면허 응시생 모집  
안정된 기술직업 - 한번 시작해 보세요!

- 4-6개월, 1년 과정, 기초부터 철저 지도, 현장실습, 취업알선
- 현재 숙성과정 학생모집 (원스, 포셀린, 메탈, 모델, 의치)
- 전 치과 기공 대학 확장, 현 면허 시험 강사 특별 지도
- 각종 장학금 혜택 목사님 추천서 10%DC

제퍼슨 치과 기공 대학 (213) 384-3006  
2140 W. Olympic Bl. #310 (월서은행 3층)

초기 이민자, 재취업 기술교육

**한국방송 + 미국방송 동시시청**

TCO Satellite Inc. DIRECTV. SATELLITE TELEVISION

지금 신청하세요!

1-800-489-8775

창문 인테리어의 모든것 - VIVA BLIND

**비바블라인드**

상업용 ROLL SHADE 자체 전문 제작

- 커튼-맞춤제작(Custom Made)
- 블라인드 - Bass Wood, Faux Wood
- Bass Wood Shutters 전문
- 마루바닥 - 원목, 인조마루 취급전문
- 은들마루

TEL.(213)-389-0070  
1411 W. 8th Street, Los Angeles, CA 90017

**크레딧카드 은행구좌 당일현금**

- 한국구좌 및 신규구좌 가능
- 크레딧 700이상(20만이상)

\*유학생 및 귀국자 특별플랜  
T. 213-278-4466

Natural Hot Spring!

**엘시노 천연유황온천**

LA에서 제일 가까운 온천장!

- 교회 단체를 위한 예배실(컨퍼런스 룸)
- 가라오케, 바베큐 시설 완비
- 가족단위 위한 객실에 온천탕 구비
- 주변에 호수, 골프코스, 아울렛, 와이너리

(951) 674-2581 / 9997  
316 N. Main St Lake Elsinore, CA 92530

# “나를 보내소서” 올해 다시 부흥을 원한다면

## 청년연합집회 HYM, 내달 21일 인랜드교회에서 개최

제 26회 남가주청년연합집회(대표 더글라스 김, 이하 HYM)가 4월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오후 7시에 인랜드교회(박신철 목사)에서 열린다.

이번 집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의미로 주제를 '사명'으로 정했다.

강사는 첫째날 유대혁 목사(남가주사랑의교회 부목사)와 둘째날 박형은 목사(동양선교교회)가 서

로도 강연이 이뤄지기 때문에 유학생과 1.5세, 2세까지 어우러지게 된다.

더글라스 김 대표는 본지와와의 인터뷰에서 “이 집회는 찬양이 중심으로 이뤄지고 특송과 말씀 선포, 결단기도의 시간이 있다”며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예배라 믿는다.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변화받는 삶을 살 수 있다. 청년들이 회개

신이 꼭 필요하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우리의 사명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다”며 “교회에서 신앙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교회 다니는 청년 중에 이원화된 생활을 하는 이들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교회를 다니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과 관계없는 생활을 하는 청년들이 많다”며 “HYM의 무브먼트는 우리의 삶이 항상 어디서나 동일해야 한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다. 기독교인이 세상에서 나가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 많은데 가만히 있으면 안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내려놓고 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행사가 하나의 행사로 비춰질 것 같지 않다.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청년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불같이

일어나길 소망하고 있다. 한 영혼을 위해 목숨을 거는 청년들이 일어나야 한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HYM은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인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Here I am)”의 첫 글자 ‘H’

와 Young Christian 에서 첫글자 ‘Y’, Movement의 첫 글자 ‘M’을 조합한 것이며, 남가주 최장수 청년연합집회로 매년 두 차례 열리고 있다.

문의: 714-393-5135(HYM)



더글라스 김 대표

매년 2차례 집회 통해 청년들 부흥으로 도전

1세 유학생, 1.5세, 2세까지 연합하는 집회로

한 영혼 위해 목숨 거는 청년들 나타나길

며, 선교사 자녀들로 구성된 CCM 그룹 LIVING CANVAS와 제 22회 CBS 창작복음성가제에서 대상을 받은 최윤영 자매가 오프닝송과 특송을 맡았다.

특히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기도와 감사의 찬양,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이 속한 교회를 세우며 나아가는 것이 목적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교회가 다음 세대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한어권 청년들의 결단과 헌



최근 열렸던 HYM 집회의 한 장면.

## 제 18회 어린이전도협회 후원의 밤 열려

‘세계복음화는 어린이로부터’라는 모토와 아이구원(1191)이라는 비전으로 어린이 선교와 전도자 양성 및 선교자료 보급을 하고 있는 어린이전도협회

행사는 어린이들의 찬양으로 활기찬 가운데 시작돼 참석 한 이들 모두 어린이와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는 시간이었고, 특히 김이진(2세) 어린이의 성

세계 복음화는 어린이로부터!

어린이 섬기는 사역 통해 변화와 은혜 체험

한인교회(대표 여병현 목사, 이하 CEFKOC)에서 지난 24일 토요일 오후 7시경 ‘제 18회 어린이전도협회 후원의 밤’ 행사를 옥스포드팔래스호텔에서 가졌다. CEFKOC는 이 외에도 후원 이사 및 회원이나 교회를 모집 중이고 어린이 회관 구입과 캠프장 구입 후원을 받고 있다.

구 암송으로 더욱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작년 어린이 캠프 때 카운슬러 지원자였던 이사라(ANC은누리교회) 양은 “신앙이 식어 무의미하게 살던 중 카운슬러 제의가 들어왔다. 캠프에 참여해 어려운 어린이들과 가정폭력에 노출된 어린이들이 매우 많다는 것을 알게 됐고



어린이 전도협회 관계자들이 행사를 마치고 기념촬영에 임했다.

캠프가 그 어린이들을 변화시켰을 뿐 아니라 저에게도 큰 변화를 줬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나? 내 영을 치라’는 구절을 되뇌며 천하보다 귀한 어린이들을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간

증했다. 이날 특별히 초청된 소리에의 지명현 목사는 “전 불교집

안에서 태어나 세상에 나와 보니 종교가 불교였지만 어릴 때 친구가 여름성경학교로 전도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다”며 “어린이전도협회와 여름성경학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고 간증하고 “낮은 자의 하나님” 외 4곡의 은혜로운 찬양을 불렀다.

한편, CEFKOC는 남가주 지역에서 다음달 21일은 LA사랑의교회에서, 그 다음달 12일은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 컨퍼런스를 진행하게 되고, 오는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Rancho Ybarra Christian Camp에서 3학년부부터 6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할 계획이다.

후원문의: 213-382-1544  
cefkorean.com 빅터 박 기자

아·이·토·크·비·비 iTalkBB 로컬/장거리/국제전화무제한

중앙일보/인터넷 웹사이트(www.sxcokbb.com) [조인스아메리카 선정] "3년연속 통신부문 최고 히트상품"

# 3개월 무료!

\* 마지막 기회! 서두르세요!

행사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글로벌 플랜**  
Global Unlimited Plan

\$24.99

/월  
기타 수수료 포함

- 미국, 캐나다 전지역 무제한 통화
- 한국 포함 27개국 국제전화 무제한 통화
- 발신자 표시 가능, 착신전환 가능

**글로벌 플러스 플랜**  
Global Unlimited Plus Plan

\$34.99

/월  
기타 수수료 포함

- 한국인만을 위한 아주 특별한 플랜
- 글로벌 플랜의 모든혜택은 기본
- 한국 휴대전화 까지 무제한 통화!

**무료 부가서비스**

- 휴대전화에서 매월 국제전화 500분 통화가능
- 한국 전화번호 제공\*\*

[30일 환불 보장]

[디지털 시대 우리집 전화]

**아이토크비비**

1.800.872.2902

자세한 내용은 [www.Korea.iTalkBB.com](http://www.Korea.iTalkBB.com) 에서 확인해주세요

\*3개월 무료 프로모션 - 본 프로모션은 행사기간 내 글로벌 플러스 플랜에 가입한 신규 가입자에 한합니다. 총 18개월의 계약기간이 있으며, 계약기간 내 서비스 액시시 위약금(\$59.99)과 보상 받으실 수 금액 합산 부과됩니다. 모든 프로모션의 최종 책임은 iTalk Global Communications, Inc. 에 있습니다. \*\* 무료 부가서비스 마이크로다이얼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요금이 청구되거나 취소 조치될 수 있습니다.

고속 인터넷 가입자에 한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 환경에 따라 통화 품질에 다소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30일 환불 보장 기간 이후 서비스 액시시 이미 납부한 월 이용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무제한 플랜 가입자에게는 개통비(\$29.99)가 부과됩니다. 무제한 통화 가능할 국가 중 미국, 캐나다, 중국, 홍콩, 싱가포르 외의 다른 국가 혹은 지역의 휴대전화는 포함되지 않으며, Puerto Rico, Guam, US Virgin Islands 등 미국 해외 영토의 통화는 무제한 통화지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제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및 프로모션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www.Korea.iTalkBB.com](http://www.Korea.iTalkBB.com) 을 참조하거나 고객 상담센터 1-800-872-2902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환불을 생각하시는 가입, 아이토크비비 아이도도에는 환불보통을 위해 중이 장서서 대신 연락하고 인연은 온라인 코어는 정시사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이·토·크·비·비 iTalkBB

1.800.875.8318  
고객상담시간: 365일 오전 6시 ~ 저녁 10시 30분 (PST)  
지금 Facebook.com/iTalkBBKorea를 방문해서서 아이토크비비와 관련된 최신 정보를 얻으세요.

아이토크비비 공인 가입센터 모집  
환인마트네 매장을 보유하고 계신분 또는 전화 사업에 관심이 많으신 분을 찾고 있습니다.  
가입센터 상담전화: **703.348.7544**  
(통화시간 월~금 오전 10시 ~ 오후 6시)

# 한인목회자와 평신도 리더를 위한 컨퍼런스

# 글로벌 고아사역을 위한

# 한국 교회의 역할

전세계있는 고아들을 도울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들을 한국과 미국의 교계의 지도자들과 함께 협력하는 이번 집회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 강사



릭워렌 목사



최홍준 목사



폴 페닝턴



에디 변 목사



박형은 목사



에리자벳 스타이피



스티브 모리슨



로빈 페닝턴



박영진/박영주



- 주관 : Hope for Orphans, Saddleback Church, The PEACE Plan
- 후원 : MPAK (한국입양홍보회), CMF Ministries, 서울 온누리 EM
- 날짜 : 2012년 5월 1일 (9AM~5PM)
- 장소 : Saddleback Church, 1 Saddleback Parkway, Lake Forest, California



[hopefororphanskorea.org](http://hopefororphanskorea.org)

Register today and save 50%. Use code CD. Go to [hopefororphanskorea.org](http://hopefororphanskorea.org) to learn more and to register.